



2004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사동학교 자료집

도시연대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4년 인사동학교 자료집

도시연대는

2000년 3월 인사동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사동학교는 인사동의 역사와 옛이야기, 인사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문화업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며 인사동의 작은 골목길을 구석구석 직접 탐방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터로만 존재하는 역사유적지, 아직도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길들, 그리고 인사동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인사동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인사동학교에서는

인사동 사람들과의 만남, 인사동 역사유적지탐방, 골목길탐방, 갤러리탐방 등을 통하여 인사동의 다양한 문화와 지금의 인사동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연대는 인사동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문화지구 인사동이 제 모습을 찾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사말

노승대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고문 •



인사동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지 60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심에서 왕궁 등의 궁궐문화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역사환경들은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밀려 파손되고 이전되고 멸실 되었기 때문임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인사동과 가회동 지역 일대에 남아있는 한옥들과 문화유산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그 흐름 속에서 도시연대도 한 몫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인사동학교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자는 모임입니다.

탐골공원 내에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비롯해 운현궁, 민익두 가, 천도교대교당, 승동교회, 조선일보 옛 사옥, 우정총국, 조계사 등 조선조 말과 일제강점기에 걸친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짧은 과정이지만 열심히 배우시고 답사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며 도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깊은 애정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동학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좌	주제	내용	강사
제1강 (4.8/목요일)	인사동 문화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 이야기 ▪ 오리엔테이션 : 도시연대 소개 및 진행일정소개 	노승대 (한울문화원 소장)
제2강 (4.16/금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과 풍수지리 	김호년 (고미술저널 대표)
제3강 (4.22/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밖의 미술 'self-taught' 아티스트의 세계 	김호근 (서울예술대학 겸임교수)
제4강 (4.29/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이야기 및 감상 	윤열수 (가회박물관 관장)
제5강 (5.6/목요일)	인사동 골목길과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동 사람들과의 만남 	변유식 (골동품점 운영)
제6강 (5.13/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과 옛사람들 	김영복 (문우서림 대표)
제7강 (5.20/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동 골목길의 의미 및 탐방 	윤의식 (수림건축 대표)
제8강 (5.27/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의 역사성 바로 보기 : 북촌 근현대사 살펴보기 /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박경룡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목 차

제 2 강 생활공간과 풍수지리

9

제 3 강 미술 밖의 미술-‘self-taught’ 아티스트의 세계

12

제 4 강 민화이야기 및 감상_민화란 무엇인가?

14

제 5 강 인사동 사람들과의 만남_나의 骨董 70년

22

제 6 강 북촌과 옛사람들

34

제 7 강 인사동 골목길의 의미 및 탐방_인사동 숨은 그림 찾기

39

제 8 강 북촌의 근현대사 살펴보기_북촌의 역사문화유적지

48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 이야기 마당

65



생활공간과 풍수지리

김호년 · 고미술저널 대표 ·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설을 삶의 지혜로서 지금의 과학만큼 믿고 신봉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민중의 생활양식은 풍수사상과 얽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일제 침략과 한국전쟁으로 삶의 기반과 생활의 질서가 파괴되고 토속신앙도 무너지고 말았다. 게다가 서양문화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풍수설은 미신으로 격하되고 거의 묻혀질 운명에 처해졌다.

이렇게 맥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생활 속에서 간간이 풍수사상의 지혜로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참 놀라웠다. 특히 옛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생활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걸 볼 때 더욱 그러했다.

예를 들면 개미집 석자(약 1m)밑에는 지하수가 있다는 얘기, 개미가 이동하거나 닭이 헛대에 오를 때 또는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얘기는 그 동물들의 생태적 습관으로 미루어 판단한 것이다. 또 먼 산이 가깝게 보이면 비가 온다는 속설도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 기류가 상승하고 그때 먼지 같은 공기 속의 혼합물이 함께 올라가 공기가 깨끗해져서 먼 산이 가깝게 보인다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당산목(고목)을 베다가 죽은 것은 나무의 독가스 때문이었고, 집안에 모과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를 심지 말라는 이유는 그 나무들은 수분 함유량이 많아 벼락을 부르기 쉽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그동안 자연의 위협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져 전통적인 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우리 선대들이 남긴 생활의 고급 지혜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직 다 풀지 못한 풍수설의 진수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건축, 역사, 환경, 민속학,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수지리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걸 볼 때 무엇보다도 '무덤 풍수'라는 사람들의 오해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들어 좋다.

풍수지리설이 미신이나 아니냐 하는 단순논리의 문제는 풍수지리설의 다양성과 미신의 의미 등 여러 문제와 연관되므로 일단 뒤로 미루자.

풍수지리설은 우리 선대들이 오늘의 과학만큼이나 믿고 생활해왔다는 역사상의



사실적 현상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적인 것과 우리의 뿌리를 거론하는 현시점에서는 선대들이 생활한 시대의 풍수지리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풍수지리설에 의해 자리 잡았고 그 이론에 맞게 건설했다. 풍수로 시작하고 풍수가 원인이 되어 이뤄진 것은 풍수로 풀어야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록 일제에 의해 헐렸다 복원되고 그 위치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광화문 앞의 해태상을 어느 외국 조각연구가가 한국에 와서 거리의 환경조각 예술로만 관찰한다면 그는 끝까지 그 해태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경복궁에서 조산(朝山)에 해당하는 관악산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뽀족뽀족한 불의 형상이어서 그 화기(火氣)를 제압하기 위한 풍수적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동대문의 웅성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전사연구가가 동대문의 바깥쪽에 쌓은 웅성을 전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조선시대의 방어전술을 상상해 보았자 헛수고만 하게 된다. 이 또한 실전(實戰)용이 아니라 풍수지리설에 따라 허약한 동쪽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쌓은 성벽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이름인 흥인지문(興仁之門)도 풍수지리설로 작명되었다. 오행설로 풀이하면 인(仁)은 동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대문 이름만 유난히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고 녀 자로 한 이유도 풍수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을 겪은 선대들은 풍수지리설로 보았을 때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보다 좌청룡인 낙산이, 즉 동쪽이 허(虛)했기 때문에 동인(東人=일본사람)들에게 당했다고 생각, 문 이름에 지(之)자를 보강한 것이다. 지(之)자는 현(玄)자와 같이 그 모양이 꾸불꾸불해서 마치 산맥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실제 인조(人造)산으로 보강하기에는 너무 벅차 상징적인 풍수문자로 보강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보 제 1호인 남대문에도 풍수지리사상이 깃들여 있다. 문의 정식 명칭인 숭례문(崇禮門)이라는 이름도 풍수설에 따라 작명되었으며 판액이 다른 문에서 보는 것처럼 횡서로 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종서로 되어 있는 것도 풍수설로 해석해야 본뜻이 나온다.

숭례(崇禮)의 한자 례(禮)는 오행(五行)으로 따지면 화(火), 즉 불이요, 화를 오방(五方)으로 풀이하면 남쪽에 해당된다. 음양오행설에 능한 사람이라면 동서남



북 위치를 모른다 해도 문의 이름만 보고 풀이하면 이 문이 성(城)의 남쪽 문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한양성의 8대문이 팔괘(八卦)에 의해 세워진 것이니 당연한 이치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숭례(崇禮)의 두 글자를 예서체로 써 보면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형상으로 보이는 불의 상징문자임을 알 수 있다.

역시 한양의 조산으로 화성(火星)인 관악산의 불기를 불로써 막으려는 뜻에서 숭례(崇禮)가 된 것이며, 글씨를 가로로 쓰면 불꽃(禮)에도 숭(崇)이 불붙지 않으므로 세로로 세운 것이다. 두 글자는 모두 염화(炎火)의 상징문자다.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구체화된 것도 있다. 세검정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 창의문(彰義門)에 나무로 닭을 새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설의 형국론에서 창의문 밖의 지형이 지네형국(蛇形)이어서 이 지네에 상극(相克)하는 닭을 조각, 지네를 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양주 북한산으로 통한다는 북문인 숙정문(肅靖門)은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한번도 열어 놓은 적이 없는 문으로 유명하다. 역시 풍수지리사상 때문이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五洲衍門)』에 따르면 이 문을 열어 두면 성내 여염에 상중하간(桑中何姦)의 풍(風), 즉 음란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폐쇄한 것이라고 한다.

덕수궁의 궁문인 대한문(大漢門)도 원래는 대안문(大安門)이었다. 안(安)자가 한(漢)으로 바뀐 것인데 역시 풍수설 때문이었다. 안(安)자는 계집(女)이 관(官)을 쓴 형상인데, 고종황제 시절 요화 배정자가 요염한 양장에 요란스런 모자(보닛)를 쓰고 꺾문을 출입하자 이를 싫어한 충신이 풍수지리로 보아 안(安)보다는 한(漢)이 적절하다며 대한문으로 고칠 것을 상소해 바뀌었다고 전한다.

관악산의 화(火)기를 수(水)성이 강한 해태상으로 제압한다거나 창의문의 '나무 닭'이 문 밖의 지네형국 산세를 누른다는가, 동대문의 용성이 동쪽을 보강해 일본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등의 풍수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신 같은 얘기다. 그러나 역사적 유물로 나타난 그 사실 자체는 풍수설로 풀어야 정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 풍수지리설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이다.

그리고 좀 더 옛 풍수지리설에 접근하게 되면 그러한 미신 같은 얘기라도 아주 부정해 버리기에겐 무언가 꺼림칙한 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와 신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미술 밖의 미술 - 'Self-Taught' 아티스트의 세계

김호근¹⁾ · 서울예술대학 겸임교수 ·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으로 흔히 보는 듯한 스타일의 그림, 농촌생활의 따뜻한 정경, 오밀조밀하고 감상적인 이런 그림들이 있어 이에 대한 반응은 동서양을 넘어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흡인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술분야와는 구별되어 좀 다른 데에 위치해 있다.

'나이브(naive)' 그림 또는 'primitive'(원초적인), 'innocent'(천진난만한)로도 지칭되는 이런 그림들은 실상 인류의 원시시대 동굴벽화로부터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는데, 모든 나라들에서 자기 식의 공감을 갖고 일상으로 즐기며 실용해 온 민속의 그림 또는 조형물들이 있어 왔다. 한국에서 민화(民畵)의 내력도 바로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전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소위 '이발소 그림'들도 이런 분야의 것으로 서양의 그림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들 그림은 소위 정통회화와는 스타일이나 지향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당대의 미술교육과정이나 미술전통, 경향같은 것에 상관없이 '스스로 배운' 자생적으로 나타난 화가의 그림들로, '민속화'(folk painting)로 묶어 명칭할 수 있는 이들의 여러 양상을 살필 수 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술' 영외에서 작품이 생산되어져 온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혼자 배워서 그렸기에 'self-taught artist' 또는 미술 밖에 있음을 드러낸 'outsider artist'로 이름해, 미술관보다 민속박물관에서의 전시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을 근래에는 미술관에서의 기획전으로 유치되는 것도 보인다. 20세기의 추상미술과 아방가르드 미술의 다양한 전개 이후 그 극복에 연관해 이런 시각작업이 새삼 주목받게도 된 것이다. 이들이 담는 내용이란 생활주변의 평범한 것을 소재로 하고, 이를 소박하게 '자기식'대로 집합하거나 때로 강조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 미술이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되지 않는 것은 보는 사람과의 커뮤니케

1) 관훈미술기획, VOOK'S 대표

(서울 종로구 관훈동 6번지, 전화:02-737-3283, papertiger21@hanmail.net)



이션을 중시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추상과 개인적인 생각이 극단화되는 현대미술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소박하고 단순한 욕망을 미적으로 표현한 나이브 미술에 쉽게 다가가게 된다.

‘그랜드마 모지스’라 불리게 되는 할머니(1860-1961)는 80세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그림 솜씨를 세상에 알리는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뉴욕 동북부 농촌에서 태어나 주변의 시골생활을 화폭에 담게 되는 그녀는 누구나 흔히 하듯 서양식의 자수나 털실 바느질을 하던 손가락이 신경통으로 잘 쓰기 어렵게 되고 외출도 불편하게 된 70대 후반에 집에 있던 건축용 도료 페인트로 벽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몇 장 그린 것을 자신의 농작물과 함께 내놓은 그림이 후에 뉴욕의 한 취미가의 눈에 띄어 몇 점 팔리게(3달러씩) 된 것으로부터 뉴욕의 한 갤러리(Etienne)에서 그녀의 그림 전시가 열리게 된다.(1940년)

〈What a Farmwife Painted〉라는 전시명칭으로 그녀의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었던 이 전시를 계기로 이후 20여년간(그녀는 101세까지 살았다) 화가 ‘그랜드마 모지스’로 살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뉴욕주는 그녀의 100세 되는 생일(1960.12.13)을 ‘Grandma Moses Day’로 경축일을 삼게 했다.

링컨이 대통령 되던 해(1860년)에 태어난 그랜드마 모지스는 미국 남북전쟁과 제 1, 2차 세계대전과 자동차, 비행기를 비롯한 20세기의 기계문명을 경험해온 연륜이 있었다. 2차 전후를 지나며 냉전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평화로운 옛 농촌 정경과 노스탈지어에 마음이 가는 시절이었고, 20세기에 들어와 아방가르드 미술이 압도하는 속에서 세삼 모지스의 그림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까지 이렇다 할 미술교육 기관도 없는 가운데 화가는 유럽행을 하던지 유럽의 영향 아래 있었고, 한편 유럽과는 무관한 미국의 미술-사회환경에 따른 미국식 리얼리즘의 미술사가 펼쳐지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생활주변, ‘가정’과 집안에 걸맞는 소재의 그림들을 가까이 하며 H.피핀, E. Hicks, 모리스 허쉬필드의 민속풍의 그림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이런 미술은 미국에서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도처에서 있어왔고, 현대에 와서 제각기의 표현과 함께 미술사의 권외에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나이브 미술관’이 생기고 평면과 입체를 아울러 ‘컨템포러리 포크아트’로 엮여져서 미술교육을 따로 전제하지 않은 이런 self-taught 아티스트의 다양하고 힘찬 self-made world가 전개되고 있다.



민화란 무엇인가?

윤열수 · 가회박물관장 ·

1. 민화는 감상을 위한 것인가?

‘민화’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이다. 그는 1929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민예품전람회(민예품전람회)에서 ‘민속적 회화’라는 의미로 ‘민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937년 2월, 일본의 월간 <공예>지에 기고한 ‘공예적 회화’라는 글에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민화라는 용어를 부른 것은 일본 민속화의 일종인 오오쓰에(大津繪 : 먹으로 간략하게 그린 그림에 호분(胡粉) 등으로 착색한 일종의 조화(粗畵). 원래는 불화(佛畵)였으나 후에 토속화(土俗畵), 회화(繪畵)로 변했다. 에도(江戸)시대 오오쓰(大津)지방에서 많이 그렸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도로에(泥繪 : 간판 등을 그리는데 쓰는 값싼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 대개 값싸고 불투명한 호분 등을 섞어서 그린다), 에마(繪馬 : 절이나 신당 등에 기원할 때나 그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례로 말(馬)을 대신해서 바쳤던 말 그림. 후에 와서는 말 이외에도 다른 그림을 그려 넣거나 글씨 또는 시문을 써 넣기도 했다.)를 지칭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민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959년 8월 <민예>지에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라는 논문과 삽화 해설에서 조선 후기에 그린 소위 속화(俗畵) · 별화(別畵) · 잡화(雜畵) 등을 민화라 부르고 있으며 그가 저술한 <조선의 민화>에서는 “대체로 회화에는 정통회화와 비정통회화의 두 흐름이 있다. 전자는 예술가로서의 화가의 작품을 말하고, 후자는 대부분 그림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무명화가나 떠돌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자는 감상을 위해 그린 것이며 후자는 실용성이 수반되는 그림이다. 전자는 같은 그림을 한 장 이상 그리지 않으나 후자는 똑같은 것을 몇 장이나 반복해서 그렸다. 따라서 전자는 창조를 본질로 하고 후자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많다”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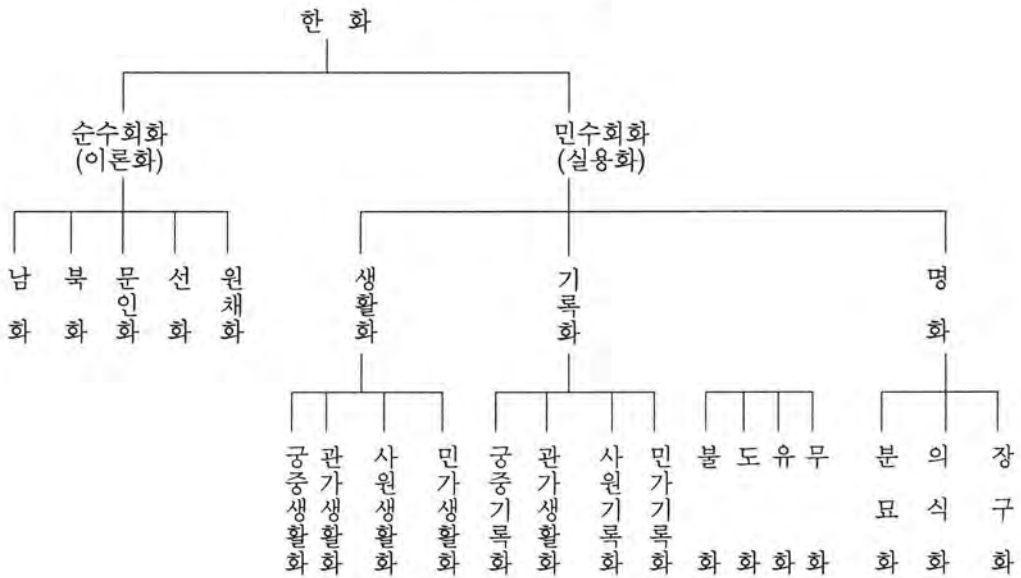
그러나 야나기 무네요시가 ‘민화’란 용어를 쓰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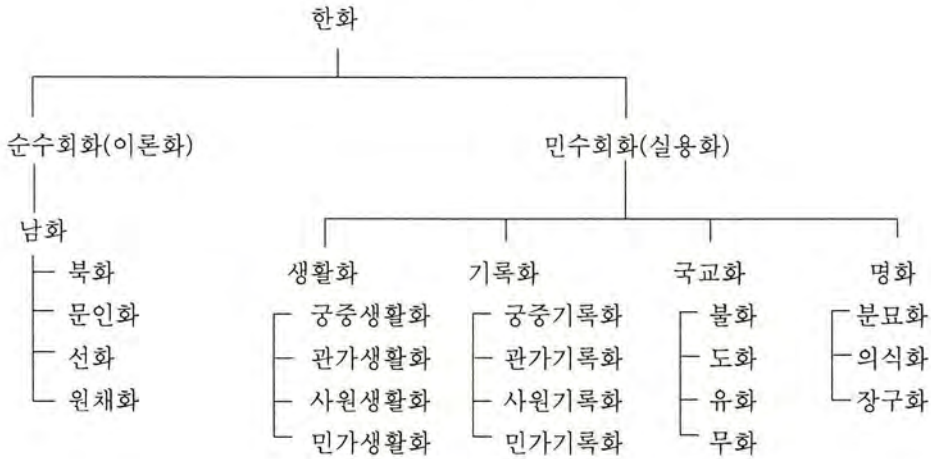


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는 어염집의 병풍, 족자 또는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속화(俗話)라고 칭했다.

우리나라의 민화 연구자인 조자용(趙子庸)씨는 한국의 모든 회화를 한화(韓畫)라 하고 이를 순수회화(純粹繪畫)와 실용회화(實用繪畫)로 분류하면서 민화란 넓게 보면 한화를 일컫고 좁게 보면 실용회화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그는 광의의 민화관과 협의의 민화관은 '민(民)'의 개념이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종래의 협의의 민화관을 극복하고자 주장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순수회화'란 정통회화, 이론화, 순화 혹은 감상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미술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예술행위로서의 그림을 뜻한다. 순수회화는 동양화의 경우 그 화풍에 따라 남화(南畫), 북화(北畫), 문인화(文人畫), 선화(禪畫), 원체화(院體畫)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채색을 기준으로 하여 묵화(墨畫), 채색화(彩色畫), 농채화(濃彩畫)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민속회화'는 대체로 실용화(實用畫), 용화(用畫), 실화(實畫), 응용화(應用畫) 등으로 불리는 그림들이며 미술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삶을 위한 그림으로서 불리는 목적과 쓰이는 곳에 따라서 생활화(生活畫), 기록화(記錄畫), 종교화(宗教畫), 명화(冥畫)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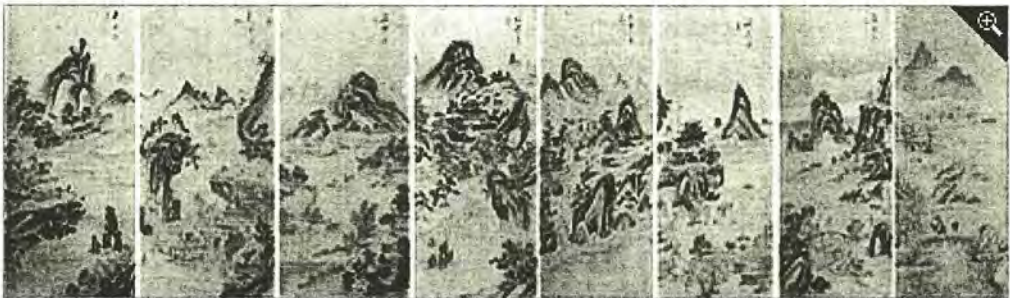
한화분류표





한편 그는 외국에서 일반적인 민화를 규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외국의 민화와 한국 민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추론하였는데 대체로 민화는 무명성, 실용성, 공예성, 상징성 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민화는 야나기 무네요시나 구미의 민화관에 끼워맞출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화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이용되었던 점과 민화의 여러 특징들을 연결시켜 '민화는 걸치레나 형식을 벗어난, 서민의 기질이 다분히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 민화는 토속신앙과 세계관이 반영된 그림이다.

민화의 특성으로 실용성, 상징성, 예술성을 꼽을 수 있다. 순수미술은 예술성을 앞세운다. 이와 달리 민화에서는 예술성보다는 실용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민화에는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시대마다 그 때에 그려진 그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상징성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민화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어서 그것이 그려진 시대의 시대상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민화의 상징적 표현은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는 공통의 세계관을 매개해주는 역할도 한다. 가령 부귀다남(富貴多男)·부귀공명(富貴功名)·무병장수(無病長壽) 등 인간으로서의 소박한 바람이 민화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민화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동경의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옛 사람들에게는 자손의 번영과 출세는 음양의 조화, 풍수의 조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었으므로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민화의 청룡백호도나 지도화에서 독특한 시점과 묘사법으로 나타난다. 민화의 지도화는 산과 집들을 화면의 한 중심에서 사방을 둘러본 것처럼 그린다. 이는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에 바탕을 둔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나 배산임수(背山臨水)라 하여 물을 앞에, 산을 뒤로 한 바로 그 지점이 인간과 산신(山神)이 한 마당에서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화는 단지 등축도법(等縮圖法)에 의한 실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개념화된 풍수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지도화와 같은 독특한 그림을 낳게 한 것이다.

민화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상징성들은 사회 전체에 의해 공유되기는 하지만 특수한 사회부류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수성에 의해 그 상징이 변질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성이 민화만의 독특한 상징적 표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3. 민화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 ?

이우환 씨는 민화를 십장생, 사신도, 벽사, 신선도 등의 도교적인 것, 세속화된 불화, 고승상, 사원벽화 등의 불교적인 것, 문자도, 문방도, 백자동화 등 교육적인 것, 그리고 화조, 어류, 산수, 풍속 등의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들 그림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거의 본래 사상과 관계없이 오히려 도형의 스타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얽히고 설켜기 때문에 주제에 의한 분류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김철순씨는 민화를 꿈의 민화, 사랑의 민화, 믿음의 민화, 길상의 민화, 깨달음의 민화 등으로 분류하여 민화가 겨레그림으로서 서민들의 꿈과 믿음과 깨달음의 의식을 담아낸 그림이란 뜻으로 분류를 시도하고 다시 소재를 중심으로 화조, 산수, 민속, 불교화로 분류하였다.

김호연씨는 민화를 9개의 범주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화조화, 호랑화, 동물화, 산수화, 풍속화, 속신화, 불교화, 윤리화, 장식화 등이 그것이다.

조자용씨는 민화를 크게 한화라 이르고 이를 순수회화와 실용회화로 분류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그것을 상징별로 수(壽), 쌍희(囍), 자복(子福), 재복(財覆), 영복(寧福), 녹복(祿福), 덕복(德福), 길상(吉祥), 벽사(辟邪), 민족(民族) 등 열 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화제별로 나누어 산수화(山水畫), 수석도(壽石圖), 화훼도(花卉圖), 소과도(蔬果圖), 화조도(花鳥圖), 축수도(蓄獸圖), 영수화(靈獸畫), 어해도(魚蟹圖), 초충도(草蟲圖), 옥우화(屋宇畫), 기용화(器用畫), 인물화(人物畫), 풍속화(風俗畫), 도석화(道釋畫), 기록화(記錄畫), 설화화(說話畫), 도안화(圖案畫), 지도화(地圖畫), 혼성도(混成圖), 춘화도(春畫圖) 등 스무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근거를 두고 한 분류법이다. 이상의 몇 가지 분류 가운데 조자용씨의 화제별 분류가 가장 세분화되고 현실적으로 체계화된 분류라 여겨져 필자도 이를 기본으로 분류·정리하였다.





민상화 분류표

화 문	화 제 예	화 문	화 제 예
수 상징화	백수전도 · 백수백복도 팔선도 · 신선축수도 십장생도 · 선도도 백록도 · 백학도 백어도 · 군선도 일월도 · 송학도 노송도 · 해학반도도 신귀도 · 괴석도 석지도 · 수성도	자복 상징도	백자도 · 석류도 약리도 · 운룡도 평생도 · 삼다도
도덕 상징화	문자회 · 문방도 효자도 · 충렬도 여재도 · 성현도	쌍복 상징화	쌍치도 · 쌍압도 쌍록도 · 싸어도
재복 상징화	모란도 · 삼다도 석류도 · 돈몽도 경직도 · 길상도	길상 상징화	사령도 · 봉황도 기린도 · 신귀도 운룡도 · 군작도
영복 상징화	백락도 요산요수도 · 어락도 행락도 · 요지연도	벽사 상징화	치우도 · 처용도 종규도 · 신용도 용호도 · 사신도 천계도 · 해태도 팔괘도 · 신구도
녹복 상징화	평생도 · 모란도 백접도 · 봉후도 금의공자도 · 약리도	민족 상징화	금강사도 · 관동8경도 평양기성도 · 진양성도 단군영접 · 충무공신상도 치우도 · 처용도 호랑도 · 송작도 평생도 · 풍속도 춘향전도 · 반차도



4. 민화에는 주술적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들 그림이 가진 주술적 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 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벽사구복(辟邪求福)의 사상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 현세 복락주의와 벽사의 관념은 서민들에게 유구하고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샤머니즘 혹은 애니미즘의 일종이다. 이 원시적 형태의 종교가 불교나 도교 등과 융합을 거치면서 독특한 민간신앙을 형성하였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은 세삼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화 중에는 토착적인 종교와 결합된 풍습에 의해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 있다. 이를 세화(歲畵)라 하며 매우 널리 그려졌다. 궁중은 물론이고 사대부들의 저택, 일반 서민들의 집에서 입춘방처럼 축귀(逐鬼)나 구복의 상징으로 그린 세화를 정월 초하룻날 대문 또는 집안에 걸거나 붙이게 했다. 그 대표적 예가 호랑이 그림인데, 호랑이는 영물로서 악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호랑이는 고구려 벽화의 사신도에 그려진 것처럼 음양오행설로 따지자면 서쪽을 상징하는 금(金)에 해당하고, 털짐승의 우두머리이며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의 상징으로서 지상의 잡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영물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선 이것이 상식이고 사실이었으며 '영적인 힘을 지닌 동물 그림을 집에 둠으로써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은 민화의 발생과 전파에 큰 사상적 기저가 되었다. 이러한 주술적인 요소를 지닌 벽사화로는 사신도, 사령도, 용그림, 산신도, 신장도 등이 대표적이다.

5. 민화는 '뽀' 그림이다.

민화는 그 주제와 표현의 원류에 있어서 문인화나 도화서 화공들의 그림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담아내는 내용이나 표현기법은 다르다. 이는 민화가 속칭 '뽀그림'이라고 하여 일정한 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점차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특징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본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가운데 조선시대 상류층과 왕권 중심으로 형성된 유교적인 세계관이 토속적이고 종교적인 민중들의 세계관으로 전이되었으며, 민화가 양산되고 보급되면서 점차 서민들이 지배층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화의 형성 과정에 담겨 있는 서민들의 미의식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자연 환경에 대한 순박한 감정과 소박한 생활양식, 그리고 거짓없는 진솔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기법에서의 독특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은 바로 서민들에 의한 여타의 예술이 드러내고 있는 미적 특질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6. 민화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

민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연구의 방향을 잡아 볼 수 있겠다. 첫째, 민화에 대한 연구를 단순히 민화 자체에 대한 특수성을 밝히는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수용되었던 사회구조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른바 정통미술사에서 민화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당시 사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민화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치, 즉 자료로서의 민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술사를 단순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작품의 역사로 엮을 때 부딪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민화의 발전은 곧 전체적인 미술계의 구조와 사회적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화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사관을 형성하는 기초적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민속학이나 종교사상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도 민화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일반인의 한(恨), 또는 민중의식이나 일반적인 미의식을 가늠해보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화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 측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민화를 오늘날 어떻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다. 민화는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가치없는 저급미술로 치부되어 소멸되었으며, 민화가 당시의 미의식을 반영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는 골동적 취미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화가 지니고 있는 조형성은 오늘날의 회화의 표현방법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시대의 사상적 기저에서 오는 독특한 시점과 채색기법 등에서 비롯된 민화의 표현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사상적 기저에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화의 계승은 단순히 외형적 방법론만을 모방하고 복제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으며, 이는 민화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보면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 지도 모르겠다.



나의 骨董 70년²⁾

골동계의 산 증인
변유식 옹에게 듣는 秘話

변유식 옹은 1912년 개성에서 태어나 일제 때부터 개성에서 골동품 중개업을 시작으로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70여년간을 골동계에 종사해온 원로입니다.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변옹의 증언을 통해 일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골동계의 이면과 비화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제1화 14살에 골동에 발을 들여놓다.

“우리집은 개성에서 인삼재배를 해오며 살았는데 1920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삼밭이 모두 결단나 버리고 말았지. 인삼뿌리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게야. 그 와중에 모친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은 신경통으로 몸져 누으셨어. 하루 아침에 가세가 무너져 버린 셈이지”

변유식 옹은 한일 합방이 된 2년 뒤인 1912년에 개성에서 태어났다. 올해 연세가 아흔하나. 아버지를 도와 인삼밭에서 일하던 소년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다. 변유식 소년은 12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물감장수, 성냥팔이, 식초장수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서울에서 이광영이라고 하는 골동상인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한 달에 장사해서 얼마나 버느냐?”고 묻더니 밥 사주고 한달에 30원 월급을 줄테니 같이 일을 하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설령탕 한 그릇에 10전이고 공무원 월급이 24원할 때니까 30원이란 엄청난 돈이었던 것이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열네 살 소년은 학생복으로 산뜻하게 차려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날아갈 듯한

2) 이 글은 2002년~2003년도에 동산문화재에 연재된 글입니다.



기분이었지만 그에게는 해야 할 과업이 떨어졌다. 개성은 오백년 고려의 왕도, 그래서 집집마다 꿩이나 노리개 옛날 향아리가 많았다. 그걸 사들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나는 학생복을 입었으니까 아낙네들의 안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지. 아침시간이면 남정네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만 있거든. 거기서 살만한 물건들을 흥정하고 값을 정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이씨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거래를 하곤 했지. 옛 향아리는 ‘세 자박’(개성에서 1원을 한 자박이라 불렀음)이면 판다고 했어.”

소년은 말하자면 골동 ‘나까마’(중개인)의 유도책이라고나 할까? 남성 금지구역에 들어가 옛 물건을 찾아내고 흥정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다행히 그는 총기가 좋아서 골동품 값을 잘 기억해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서울의 이씨는 하숙을 하며 사흘이나 닷새쯤 머물다 수집한 물건을 싸들고 서울로 가곤 했었다. 이런 일을 한 달쯤 하다보니 값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살 물건, 안사야 할 물건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골동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씨가 서울에 가고 없는 동안 소년은 혼자서 동네를 돌면서 물건을 점검어두고 흥정까지 해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듬해 봄에 이씨에게 서울 구경을 좀 시켜달라고 졸랐어. 친척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의 동서남북은 알고 있었지.”

골동을 시작한 지 6개월만에 변유식 소년은 주인과 함께 상경길에 올랐다. 주인의 집은 옥인동 30번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난 뒤 주인 이씨는 양젓물을 끓이고 짚을 태운 맨재로 골동그릇을 닦기 시작하는데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 “아하! 저렇게 해서 때깔을 내는구나!” 소년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업이 끝나자 주인은 돈 5원을 주면서 전차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며 서울 시내 구경을 하고 오라고 일렀다. 위로 휴가인 셈이었다. 그러나 이날 변유식 소년은 골동상으로서의 놀라운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자립의 계기를 맞게 된다.

“남대문까지 걸어 갔다가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 충무로 골목(당시는 일본인 거리)을 거쳐 지금의 롯데호텔(당시 산업은행) 건너편까지 왔는데 거기에 일본인 골동상점이 여러 개가 있더구만. 호기심에 끌려들어 갔지. 내가 어려서부터 뱃심이 좀 있었거든.” 가게에 들어선 소년은 이것저것 물건을 구경하다가 자신이 개성에서 많이 보아온 진사향아리를 가리키며 이런 것은 얼마에 사느냐고 물었다. 백원을 주겠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다.



개성에서는 그런 향아리를 십원에도 비싸다고 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을 해본 변유식 소년은 그길로 서울역으로 달려가 개성행 기차에 올랐다. 당시 서울-개성간 열차는 하루 12차례나 있었다. 부리나케 가정집을 돌면서 진사 향아리 10개를 사들였다. 투자금은 주인에게서 받은 5원, 일본 골동상에서 받은 10원과 집에 모아두었던 35원을 합친 50원.

그날로 서울로 돌아와 일인 골동상을 찾아간 변소년은 약속대로 거금 5백원을 받아 쥐었다. 하루만에 10배 장사를 한 것이다. 장사의 재미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점심을 걸러서 몹시 시장해 길가에서 5전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지. 주인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내가 딴 장사를 했으니 이것은 그런 일이다. 상을 타던 벌을 받던 주인에게 고하자.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고민하던 소년은 인력거를 타고(큰 돈을 몸에 지녔고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옥인동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5백 10원을 꺼내놓고 자초지종을 털어 놓는 소년에게 주인은 한동안 말문을 잇은 듯 했다. 마침내 주인이 입을 열었다.

“너도 이제 알 것은 다 알게 되었다. 하는 수 없지. 이제부터는 개성에서 물건을 산 뒤 일주일만에 한 번씩 서울로 전보를 치도록 해라. 내가 개성으로 내려갈테니. 그러나 시세는 일본 골동상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싸기 해 줘야 한다. 나도 이문을 남겨야 하니까.”

이렇게 상재를 인정받은 소년 변유식은 당당히 개성을 무대로 한 골동상이 된 것이다.

이튿날 주인에게 절을 하고 개성으로 돌아온 소년은 일주일만에 5백원어치 물건을 사서 양젓물과 맨재로 그릇을 윤이 나게 닦아놓은 다음에 서울로 전보를 쳤다. 당시 개성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2~3백년 된 조선시대 진사향아리, 철사, 청화백자, 청록 등이었고 고분에서 발굴되는 청자 향아리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개성 남산골에 사는 변유식이를 찾아가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서울 골동상에서 나돌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 열 다섯살 때 일이다.

제2화 20대 개성 행상시절

개성 남산골의 소년 변유식은 스물 세살 무렵에는 어엿한 행상으로 성장돼 있었다. 일제 때 개성은 일인 도굴꾼들이 무법천지로 활개치면서 고려시대 고분을 파헤치던 시절이었다. 고려천자를 노린 일인들의 만행이었다. 도굴은 개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황해도 일대와 강화도와 서해안 일대의 섬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황해도 백천에 용미도라는 곳이 있는데 철자가 많이 출토된다고 해 가보니까 산을 전부 다 파놓았어. 용미도는 고려시대에 왕족들이 귀양왔었던 곳이라서 고려청자가 많이 나왔지.”

당시 용미도 뿐만 아니라 백령도에서도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 개성에서는 일본인 호리꾼들이 떼를 지어 고분을 파헤치고 다녔지만 주재소(지금의 파출소) 순경들과 내통이 되어 있어 단속은 말뿐이고 도굴을 모른채 눈감아 주었다. 따라서 도굴이 극성스럽게 공공연히 자행되었던 것이다.

우현 고유섭 선생과의 인연

변용은 개성 시립박물관에서 당시 관장이었던 우현 고유섭을 만난다. 고유섭은 일제 때 독보적인 미술사학자로서 우리나라 문화연구의 개척자.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선생 등이 모두 우현의 제자이거나 영향을 받은 분들이다.

“행상을 하면서 개성박물관에도 물건을 팔았지. 그때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씨도 개성박물관 직원으로 있었어.” 개성박물관은 포목상을 하던 임한선이라는 사람이 세웠고 관장을 고유섭선생이 맡았다.

“당시 개성에서는 일본인 나까무라라는 사람이 골동상의 영수였어. 도굴품도 그가 독차지했지. 나같은 행상에겐 3급, 4급품이나 팔았어. 나는 행상을 하면서 골동의 70%쯤을 시립박물관에 팔았는데 고유섭은 인자한 성품에다 공부에 매우 열심이었어.”

어느날 밤에 우현이 변유식을 관사로 불렀다. 사기그릇 조각이 나오는 고랑포의 가마골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다음날 동행을 했다. 우현은 사진을 찍고 열심히 조사를 했다. 그 뒤에는 황해도 시흥 가마에도 같이 간 일이 있다. 조선후기 분원에서 배운 사람이 만든 가마였다. 우현은 자료가 될만한 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은근히 말했다. 변유식은 우현의 인품에 이끌려 물건을 팔기도 했지만 거저 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 중에는 궁궐에서 출토된 까만 돌로 만든 기왓장도 있었다.

일제 때 서울의 골동상

일제 때 서울의 유명한 골동상으로 문광상회와 문명상회가 있었다. 문광상회는 홍순민이, 문명상회는 이희섭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서명우, 김순형, 김순태, 통인가게, 지순택(해방후 청자를 재현해 유명해 졌음)등이 골동상을 했고 서화를 취급하는 통문관(주인 이겸로), 이수만이 알려진 사람들



이었다. 김수명이란 분은 보성전문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에게 고미술품을 넣던 사람이다. 당시 인촌은 1년에 6~7천만 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구입했었다.

“문광상회는 가장 큰 골동상회였어. 골동도 하고 서화도 취급했었지. 문명상회는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짜 골동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걸로 유명했어. 가짜를 만드는 기술자에 송태호란 사람이 있었는데 강원도 양구 강산이라는 곳의 고령토를 파다가 여주에서 도자기를 구워냈는데 얼마나 진짜처럼 잘 만들었는지 90%가 진짜로 팔려나갔어. 골동상도 속아 넘어갔고 일본으로 팔려간 것도 많았지. 지금도 그때 만들어진 가짜를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는 골동상들이 있어.”

물건이 흔했던 일제시대에도 가짜는 성행했던 모양이다. 그 선두에 문명상회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 문명상회가 만들어낸 가짜는 주로 백자와 차완들. 3~4년 동안 만들었으니 그 분량은 엄청나리라는 변옹의 추산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병직씨의 조선도자주식회사.

“내시로 사군자를 잘 했던 이병직이 일본사람과 함께 조선도자주식회사를 꾸렸어. 내가 골동행상을 시작하던 무렵이야. 이씨는 회장이고 일본사람이 사장이고 그 밑에 기술자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여주 분원에 가서 4백년전의 ‘고소매’란 것을 재현했는데 진품과 아주 똑같이 만들었어. 그러나 팔리지가 않아서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 때는 진짜 물건이 흔할 때니까 가짜가 잘 안팔렸거든. 지금처럼 가짜를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니었어.”

일제 때 가짜 중 제일은 이씨의 조선도자주식회사 제품이고 두 번째는 문명상회 제품이라고 변옹은 회고한다. 가짜의 원조격인 셈이다.

김성수와 김활란 총장

일제때 거부였던 간송 전형필의 문화재수집은 잘 알려져 있다. 일인이 불법 반출해간 석탑을 비싼 값을 치루고 되찾아온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데도 한분 많은 골동을 사들인 사람이 있다. 보성전문을 세운 인촌 김성수다. 1940년대 인촌은 6~7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의고당 주인 김수명에게 맡겨놓고 골동품을 사들였다. 민족대학으로 설립된 보성전문에 번듯한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다. “나도 특수한 물건은 김수명을 통해 갖다 팔았는데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런데 6.25동란 때 다 없어지고 말았어. 참으로 애석한 일이야. 수복 후에 고대 박물관은 소장품을 다시 모았어.”



또 한사람 손이 큰 수집가가 있었다. 해방 이후 이화여대의 김활란 총장이다. 김총장은 물건을 가져오면 값을 깎는 일이 없었다. 그 소문이 알려지자 좋은 물건들은 모두 김총장에게로 몰려들었다. 지금 이대박물관이 도자기 컬렉션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김활란 총장의 덕이다. 김총장에게 물건을 넣은 것은 장규서씨. 해주고보 조사출신인 장규서는 해방 후 80년대까지 활동한 유명한 골동상이다.

“장규서는 술도 잘 마시고 성격이 특이해서 물건을 사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집에 오래 두고 보는 법이 없었어. 안 팔리면 절반 값이라도 내다 팔았지. 성질이 급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돈은 아주 잘 벌었어.”

6.25전쟁 후 이대박물관 수장품을 모았던 김활란 총장은 좋은 물건이 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반지나 팔찌를 팔아서라도 그 물건을 손에 넣을 정도로 집념이 강했다.

9.28 수복 후 김총장은 여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학에 도자기가마를 앞치게 했다. 우리 대학에 설치된 도자기가마 제 1호였다.

제3화 해방 후 6.25전쟁의 와중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 남한정부가 수립되었다. 지금은 개성이 휴전선 이북 북녘땅이 되었지만 6.25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개성은 엄연히 대한민국에 속한 경기도 개성시였다. 해방과 함께 이 땅을 지배했던 일인들은 쫓겨나갔고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이 그어졌다. 30대의 청년 변유식은 고향에서 격동의 시기를 맞는다.

“해방 후에도 개성에서 1~2년 동안 노점을 했지만 사회적 혼란으로 장사가 되질 않았지. 그럭저럭 지내다가 6.25전쟁이 나기 전인 1949년 ‘7.25사건’(북한이 개성을 기습공격, 일시 점령했던 사건)이 터져 서울로 내려왔지. 그래서 6.25는 서울에서 맞았어.”

해방이 되자 극성스럽게 자행되던 도굴도 사라졌다.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다. 또 혼란의 와중에 골동의 수요가 있을 리도 없었다. 그 무렵 변유식에게 뜻밖의 횡재가 찾아왔다.

“개성의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희귀한 청자연적이 나와 내가 샀는데 어느 날 황수영(전 국립박물관장)과 진홍섭(전 문화재위원장)이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이 연적을 사라고 했지. ‘일제 때는 좋은 유물을 일인들이 모조리 사갔지만 지금은 물건이 나와도 미군들이 헐값으로 사가는 실정이니 돈 많은 당신들이 사야하



지 않겠느냐'고 했지.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을 때라 그들도 사지 못하더구만.” 그 연적은 팔리지 않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동업자였던 진모씨가 해주에 사는 골동상이 팔아준다 해서 내줬다고 한다. 도깨비모양의 해태가 달려있는 희귀한 청자연적이었다고 변용은 기억한다.

개성 인근의 고분은 일제 때 90% 이상이 도굴되었다. 해방 후에는 도굴도 사라졌다. 골동품을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끔씩 청자가 나돌았다.

“고려 궁성인 만월대 뒤에서 깨진 청자 파편들이 많이 나왔어. 이곳은 고려 궁중 나인들의 공동묘지였어. 도굴꾼들이 깨트려버린 청자그릇 파편들을 밥풀로 붙여 헐값에 팔러 다니기도 했지.”

개성집 지하실에 유물 파문고 피난

6.25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7.25 사건이 터지자 당시 개성 시립박물관장이던 진홍섭은 유물의 안전을 위해 시립박물관 소장품 대부분을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옮기게 된다. 진관장의 이 같은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 개성박물관의 유물은 어찌 되었을까? 십중팔구 폭격에 불타버렸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북녘에 남겨졌으리라. 따라서 당시 개성박물관 진홍섭관장의 공로는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용은 서울로 피난 오면서 집에 있던 골동품들을 지하실에다 묻고 내려왔다. 항아리에 잘 담아서 보물 파문듯이 묻어놓은 것이다. 장차 박물관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집 주소가 개성시 궁정동 57번지였어.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지. 그런데 1.4후퇴 때 수원으로 피난을 가서 금은방을 하고 있을 때 미공군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서 개성의 공중촬영지도를 얻어 본 적이 있어. 그런데 궁정동 57 우리집이 연못이 되버렸더구만.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허전했는지...”

서울에서 6.25 맞아

6.25동란을 서울에서 맞은 변용은 당시 서울에 머물렀던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궁핍의 시련을 겪었다. 70이 넘는 노부를 모시고 양식을 구하려 폐허의 서울 거리를 헤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동관계로 잘 아는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변유식을 상공회관으로 데리고 갔다.

“상공회의소에 끌려 가보니 압수해온 패물이며 골동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 책임자인듯한 사람이 나와 ‘골동품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야 할텐데 당신이



분류를 하라'는 거였어.

하루종일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니 저녁에 쌀 한 포대를 주면서 내일도 또 나오라고 하더군. 그 당시 내 집은 청파동 선린상고 근처였는데 다음날부터 겁이 나서 안 나가고 숨어 있었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기에 덕수궁에 있던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은 일대 위기를 맞는다. 박물관 직원들이 소장품의 복송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으며 그 결과 소장품은 무사하게 되었다. 혼란의 와중에 박물관 소장품을 지켜낸 두 사람의 숨은 공로를 변용은 증언한다.

국박 소장품 손재형씨 등이 포장 지연

“9.28 수복 전에 공산당들은 박물관 유물을 평양으로 실어가려고 짐을 싸게 했었지. 그 포장작업에 동원된 서예가 소전 손재형(작고)과 고미술품 수장가인 홍기대씨가 작업을 지연시키려고 피를 내었지. 아무렇게나 싸면 물건이 깨질 위험이 있다면서 나무상자에 종이를 서너번 씩 바르고 마르기를 기다렸어. 자연스럽게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마침내 공산당 간부들은 다급한 전황에 밀려 유물의 운반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

“수복 후에 일부에서 소전 손재형과 홍기대가 공산당에 협력한 ‘부역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실은 두 사람은 박물관 소장품을 지킨 애국자였어.”

1.4후퇴 직전까지 안국동서 골동상

9.28 수복이 된 이후 변유식은 생계를 위해 안국동에 골동상을 냈다. 안국동에는 불과 몇 달밖에 장사를 못했지만 변용은 평생 후회하게 되는 잊지 못할 사건을 겪는다.

조선왕조 태조로부터 역대 임금의 어진이 수록되고 뒷장에 아무개가 그렸다는 낙관이 찍혀진 귀중한 화첩 두 권을 입수했는데 돈 때문에 미군에게 3만원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다. 1950년 12월 28일이었다고 변용은 기억한다.

“1.4후퇴 직전이었는데 어느날 미군장교가 한국군장교와 함께 가게에 들어와 이것저것 물건을 보고 나더니 영정첩을 사겠다고 하더구만.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난길에 돈이 필요하고 해서 팔았지. 당시 3만 원이면 큰돈이었지. 내가 역적 노릇을 한 거야. 칠십 평생 골동상을 했지만 내 양심에 가책을 받은 것은 이 일 한가지뿐이야.”



팔아도 한국 사람에게 팔았어야 한다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용은 후회하고 있다. 그 화첩의 행방은 지금껏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제4화 1960년대 이후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과의 만남

변유식옹은 해방 전과 해방 후 골동상을 하면서 두 분의 민족 지도자를 만났다. 백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다. 백범 선생을 만난 것은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에서였다. 해방 전 개성에서 골동행상을 하던 시절, 귀금속 장사일로 중국 상해를 자주 드나들었다. 하루는 개성 선죽교 옆 별장에 살고 있던 김영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김씨는 상해에 자주 가느냐고 묻고 나서 편지 한 통을 꺼내더니 “가는 길에 상해 아무 곳의 아무개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용돈까지 챙겨주는 것이었다. 변용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심부름을 두 번이나 했다.

세 번째는 편지 내용이 몹시 궁금하여 슬그머니 열어 보았더니 봉투 안에는 뜻밖에도 거금의 수표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상해에 이르러 지정된 외국조계에서 조선사람을 만나 수표가 든 봉투를 전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백범 선생이 당신을 만나보기를 원하신다”며 변용을 이끌고 후미진 식당으로 안내했다. 개성의 김영배가 보낸 편지는 실은 임시정부 수반인 백범에게 전달되는 군자금이었다. 세 번째야 비로소 내용을 알게 된 변용은 혼비백산, 다시는 그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손재주가 좋아 한번 보기만 하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변유식옹이 1950년 김신 교통부장관의 부름을 받았다. 변용은 당시 화각장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교통박람회에 출품할 꽃가마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가마는 망사에 그림을 넣고 명주실, 수실장식 가마채를 매게 될 네 명의 가마꾼 의상과 병거지 등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일이었다. 예산은 450만원으로 빠듯한 규모였다. 꽃가마를 완성하여 덕수궁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 뒤 어느 날 아침 일찍 중부경찰서장이 변용의 집을 찾아와 경무대로 데리고 갔다. “경무대에 들어가 보니 목조 2층집이 일제 때 그대로더구만... 이박사님 내외분을 뵙자마자 넉죽 큰 절을 올렸지. 이대통령은 칭찬을 하시면서 몸소 가마에 앉아보시기까지 했어.” 그러나 요즘 흔한 하사금 같은 건 없었다. 얼마 뒤에 보스턴에서 열린 대회에서 자신이 만든 꽃가마가 2등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다고 한다.



덕수궁 앞 삼우상사 시절

1950년대 말 변용은 시청 앞에 삼우상사라는 골동상을 차렸다. 목기 전문의 이영순씨와 동업이었다. 당시 국립박물관이 덕수궁에 있던 때라 박물관에 물건을 팔러 시골에서 왔다가 되돌아가는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길목이라 꽤 재미를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서울에 골동상이라고는 인사동에 몇 개밖에 없었다. 인사동에서는 주로 서화를 취급하던 홍순민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 을지로 진고개에는 일제 때부터 유명했던 문명상회(대표 이희섭)가 있었다.

그 당시 물자도 귀하고 골동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 부잣집의 관복장이나 문갑 등 가구를 고쳐주고 다시 팔고 하는 가구점이 대부분이었다. 가구점에서부터 인사동 골동상이 시작된 것이다.

“국립박물관 김재원 관장은 나보다 두 살 위인데 서로 농담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지. 김관장과 이런 일도 있었지. 내가 농담 삼아 ‘개는 똥을 좋아하지, 다이아몬드 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야’하고 슬쩍 농을 걸었더니, 김박사가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서 ‘에끼 이사람, 그럼 내가 개란 말인가’라며 화를 내더구만. 그리고 이어진 푸념이 ‘말이 좋아 국립박물관이지 물건을 살 예산이 있어야 말이지’하더구만” 자유당 말기의 어려운 시절에 물건구입을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그 무렵 박물관에서 가짜를 진짜로 감정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해프닝이 가끔 있었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서 가짜라고 단언한 도자기를 가져다 보여주는데 아 글썽 이게 진짜더란 말이야. 시침 딱 떼고 혈값에 사서 툭툭히 재미를 본 적도 있어요.”

그 무렵 미국대사관의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슨은 토기와 자기 등 우리 문화재를 많이 사들였다. 그야말로 혈값으로 5.16혁명 후에는 주한 프랑스대사인 상바르가 큰 고객이었다. 우리가 우매했던 시절, 주한 외국 외교관들은 한국 문화재의 진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6.25 동란 이후 초근목피의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전세품들을 들고 나와 약간의 돈과 바꾸었다. 고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다.

“‘머리카락이나 채권 삽니다’라며 골목골목을 외치며 다니던 사람들이 집안에서 예전에 쓰던 기름병이나 향로 향합 등을 사다가 팔면서 골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골동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변용은 증언한다.

50년대 말에는 목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가난했던 시절, 별 소용도 없어 집안



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목기가구들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강화 반닫이나 경기 반닫이는 그때 돈으로 7~8만원 값지. 당시에 도 값이 나가는 편이었어. 지금이야 3천만원에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지만.” 변용은 손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반닫이를 개조해 팔았다. 앞문을 열고 고정시켜서 책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미군들이 많이 사갔다고 한다. 모양새도 좋고 기능성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4.19혁명이 일어난 60년 초까지 변용은 먹고 사는 일 걱정없이 편안히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가짜와 진짜의 틈바구니에서

골동계에서 진짜와 가짜 시비는 끊임 없이 없다. 골동계라는 곳이 워낙 태생적으로 암수가 많은 곳인데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아직 우리 고미술업계는 권위있는 공공 감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짜 시비는 막을 방법이 없다. ‘자신이 갖고 있으면 진짜고 남이 갖고 있으면 가짜가 되는’ 그런 식이다.

“60년대에는 업계에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물건을 잘 몰랐거든.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들은 재미를 많이 봤지.”

변용이 그 무렵 재미 본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면 “박대통령 시절, 삼선교 지나서 있던 국무총리실에서 나와 달라고 해 갔더니 조선시대 마패를 급히 구해 달라는 거야. 당시 주한 미 8군 사랑관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진짜 마패를 이임식때 기념품으로 증정하겠다는 거야. 만약 가짜를 가져오면 징역을 가게 될 터이니 알아서 진짜를 구해오라며 200만원을 내주겠다고 하더구만.”

그 이전에 주한 미대사관 고위관리가 서울에서 선물 받은 마패를 미국에 가져갔는데 미국에서 감정해보니 가짜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일로 정부당국자는 두 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신중에 신중을 더했던 것이다. 하긴 마패는 가짜를 만들어내기가 가장 쉬운 종목이다.

오랫동안 낚시공장, 주물공장을 해본 경력이 있는 터라 진짜 마패를 구하는 일이란 변용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훌륭한 진짜마패를 구해다 바치고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훨씬 뒤 본국으로 귀국한 미 8군사령관으로부터 감정결과 진짜라는 통보가 국무총리실로 날아들었고 덕분에 변용도 정부의 치하를 받게 되었다.

변용은 오래 전부터 모 TV방송국에서 인기프로로 진행되고 있는 ‘진품 명품’코



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시가 1천만원으로 감정된 물건이 실재로는 5~6백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인사동에서 석굴암이라는 가게를 할 때 미군들이 주 고객이었다. 동업자가 영어에 능통해 장사는 잘 꾸려 나갈 수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우리 도자기를 많이 사갔다.

“한국 사람들은 값을 너무 깎으려 하는데 비해 외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이었어요.” 1972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물건을 잘못 사서 팔면 징역 가야 할 정도로 법이 강화되자 변용은 석굴암의 문을 닫았다. 그 후 몇 해를 놀다가 1983년에 다시 석굴암 문을 열게 된다.



북촌과 옛사람들

좌경숙³⁾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김영복 선생님이 수선전도를 가지고 오셔서 칠판에 걸어두신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옛 지도 속으로 들어가 옛사람들의 집 앞을 지나며 문패를 훑어보고 대문 안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눈이 마주친다면 궁금했던 일들도 물어보며 북촌을 돌아다녀 보려한다. 아쉬운 것은 유적이 당시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기보다는 “터”였다는 표지석만 남아있는 곳이 많아 우리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황현(1855-1910)은 <매천야록·梅天野錄>에서 “서울의 대로인 종각 이북을 북촌이라고 부르는데 노론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 남쪽을 남촌이라 부르는데 소론 이하 삼색이 섞여 살았다”고 적고 있다. 종로와 청계천의 윗동네인 북촌은 1930년 창덕궁과 종묘를 관통하는 율곡로가 만들어지고 이 길을 경계로 종로 일대의 인사동, 와룡동 지역과 위쪽의 가회동, 원서동지역이 분리되었는데 이후로는 북촌을 두 궁궐 사이인 율곡로 이북지역에만 한하여 부르게 되었다. 지금의 원서동, 재동, 가회동, 계동, 소격동, 사간동, 삼청동, 팔판동, 화동, 안국동, 송현동이 이곳에 포함된다.

북촌은 도성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별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될 뿐 아니라 남산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풍광 또한 아름다워 집을 짓고 살기에 가장 뛰어난 곳으로 손꼽혔다. 이러한 곳에 왕족과 종3품 이상의 당상관이 살았으므로 조선시대의 정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곳이고 또한 대한제국,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개화와 독립운동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 광복 후 지금까지 민족운동의 흐름과 물결을 같이 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3) 2004년 인사동학교를 수료하신 좌경숙님께서 김영복님의 강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동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때 단종을 성실히 보살피던 황보인 등을 참살했는데 이때 흘린 피가 내를 이루고 피비린내가 나서 마을사람들이 집안의 재를 모두 가지고 나와 붉은 피를 덮으니 온통 회로 덮였다하여 잿골로, 재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재동 83번지에 있는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는 풍양조씨 집안출신인 신정왕후 조대비의 친정이었다. 대대로 7대에 걸쳐 판서를 역임한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자신이 중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친정 집안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안동 김씨들이 세도를 누리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흥선 대원군을 가까이 하였고 1863년 철종이 후사없이 승하하자 이하응의 둘째아들 명복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왕위에 오르도록 했으며 고종 3년까지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곳에는 또 개화파의 스승이었던 박규수(연암 박지원의 손자)의 집이 있었고 한성고등여학교, 경성여자보통학교, 경기여학교가 되었다. 최린의 집과 이상재 선생이 숨을 거둔 곳도 있고 해방 직후에는 이곳 경기고등여학교 강당에서 여운형과 박헌영을 비롯한 사람들이 전국 인민 대표자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제8호인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백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재동 백송이다.

화동은 조선시대에 화초를 기르던 관아인 장원서가 있어서 화개동으로 부르면서 시작된 동명이다. 화동 1번지에 있던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겨간 뒤에 그 자리에 설립된 시립도서관인 정독도서관에는 많은 사적과 사적지가 있다. 옛 경기고 운동장에 김옥균의 집터가 있는데 갑신정변에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각지를 방랑하다가 1894년 상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당했다. 도서관 입구 좌측에는 집현전의 학사이자 사육신의 한 사람인 만세의 충신 성삼문의 집터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9호인 종친부 건물이 있는데 소격동에서 옮겨온 것이다. 종친부는 주로 역대 선왕의 족보인 어보와 초상화인 어진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며 종실의 사무





를 집행하던 곳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병조에 예속된 임시관청이던 화기도 감 터가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궁중 정원의 꽃과 과일나무를 관리하며 수시로 궁중에 관아의 꽃과 과일을 공급하던 관청인 장원서 터가 있다. 화동 35번지에는 조선조 정도이래 궁중에서 사용하던 복정이라는 우물터가 있다.

가회동은 조선 초기에는 한성부 북부 가회방(기쁘고 즐거운 모임)지역이었다. 이곳 170-12번지 가회동 동사무소 앞에 구한말 천도교 지도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의암 손병희의 집터가 있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현상운의 집터가 있고 가회동 1번지 북쪽 모퉁이에서 삼청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취운정 터가 있다. 이곳에서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이 서로 왕래하면서 정세를 토론하고 거사를 구상했다한다. 또한 유길준이 이곳에서 유폐생활을 하며 <서유견문>을 저술했다.

예부터 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 그 세가지가 맑다하여 삼청이라 불리며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삼청동에는 세종때의 명재상인 맹사성의 집터가 있다. 청백리로 소를 타고 출근하며 피리를 즐겨 불었다한다. 효성도 지극하여 10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7일동안 단식을 했고 여러 차례 늙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한다. 지금의 금융연수원 안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어있는 번사창이 있다. 번사라는 말은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용액을 부어 주조하는 것으로 조선 말 근대식 무기를 제작하던 관아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조 때 설치한 군기시 창고인 별창으로 북쪽에 있다하여 북창이라 불리던 북창터가 남아있다.

사간동에는 당시의 언론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간원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호인 동십자각이 있고 왕에 대한 충고기관으로 왕의 과실이나 여러 정령의 득실에 대해 간쟁과 논박을 하는 사간원 터가 있다.

조선 초기부터 있던 북부 10방 중의 하나인 안국방의 방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안국동이라고도 하고 중종 때 예조판서 김안국의 이름을 따서 안국동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안국동 36번지에 있던 감고당은 숙종이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친정을 위하여 지어준 집이다. 장희빈의 모략으로 궁궐에서 쫓겨나 6년 동안 간혀 살다가 환궁한 곳이기도 하다. 후에 명성황후가 이집에서 자라나 왕후가 되었다. 안국



동 175번지에 있던 안동별궁은 세종 31년 영웅대군의 집으로 지어졌으며 세종이 이곳에서 돌아가시자 그대로 빈소로 사용되었다. 후에 고종이 원자를 얻어 왕세자로 책봉한 뒤 별궁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순종의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현재 안동별궁의 일부가 풍문여고 자리에 들어가 있다. 안동별궁과 북쪽으로 담을 맞대고 서광범의 집터가 있다.

창덕궁의 서쪽에 있어서 원서동이라 불리우는 이곳에는 선조 26년에 설치된 훈련도감의 북영터가 있다. 북영은 수도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으며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관청이었다. 신선원전은 조선의 역대 국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신 궁전이었는데 어진은 6.25때 부산으로 옮겼다가 모두 불에 타 소멸되었다. 원서동 134-8에는 모더니즘의 시인 박인환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집터가 있다. 74번지에는 송진우의 집터가 있는데 그는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으며 중앙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반탁운동 당시 온건론을 펴다가 강경파들에게 피살당함으로써 해방 후 정치테러의 첫 희생자가 된 인물이다. 원서동 28번지 일대에는 창경궁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 빨래를 했다하여 빨래골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은 도로로 복개되어 일부분만 남아있다.

소격동은 삼척성진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사에서 따온 동이름이다. 소격사는 도교의 사당으로 도교의 제사의식을 위하여 태조 5년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소격동 165번지에는 왕가의 계보, 기록, 친필 같은 문서를 보관하던 관아인 규장각 터가 있다. 원래 홍문관에서 보관해왔던 이 문서들은 홍문관의 폐지로 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수십만 권에 달하는 책을 규장각으로 옮겨 소장하였다. 규장각은 정조 즉위년에 설치하였으며 1910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규장각의 장서가 옮겨졌다가 광복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대학 중앙도서관의 장서로 취급되었다. 1990년 이후 서울대학교 안에 새로 신축한 규장각으로 이전하였다.

계동 1번지의 중앙고 본관은 사적 제281호이고, 서관은 사적 제282호, 동관은 28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동 현대사옥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남북축의 일직선 진입로는 해방 직후 건국운동의 주요 동선이며 3.1운동 발상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중앙고보 숙직실은 3.1운동의 책원지로서 동경유학생 송계백이 찾아와 현상윤과 송진우에게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고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전달함으로써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장소이다. 한용운이 <유심>이란 월간지를 출판하여 중앙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었던 유심사 터가 있다. 중앙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변에서 중앙탕 옆골목 두번째 집은 만해 한용운이 살던 집이다. 계동 25-1에는 돌로 만든 석정골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이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지곤 해서 보름우물터라고 불리워졌다. 계동130번지에 인촌 김성수의 집이 있고, 140-57에는 해방 직후 건준위원장, 인민당 당수였던 몽양 여운형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동 손칼국수집으로 변해 있다. 현대빌딩 앞 화단에는 제생원 터가 있고 계동 146번지에는 중국과 일본의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을 교육하던 승문원과 홍문관 터가 남아 있다. 사적 제296호인 관상감 관천대가 있다. 또 현대사옥 안에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절박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경우궁과 계동궁의 터가 남아 있다. 계동 1번지에는 노백린 장군의 집터가 있다. 현대사옥 주차장 맞은 편 2층 양옥은 해방과 더불어 나라의 안전과 나라 세우기를 목적으로 여운형과 안재홍 등 좌우익 세력이 함께 출범시킨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창립 당시에 본부를 두었던 임용상의 집터였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흔적을 없애버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판관동은 8명의 판서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동명이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송현동은 솔고개, 또는 솔재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한국일보사와 미대사관 직원 숙소 사이에 있던 고개로 소나무가 뻗뻗하게 들어 있어서 송현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송현동 면적의 절반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제2관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요한 표지석들을 따라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북촌과 옛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해 보았다. 이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북촌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남아 있다. 이곳에 삶의 흔적을 남긴 인물을 따라 인물 중심의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골목길을 다니며 이렇게 역사 속에서 걸어온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한다.



인사동 숨은 그림 찾기

윤의식 · 수림건축사 사무소 ·

우리 옛길은 물길과 닮은 데가 많다. 웅달샘의 작은 물줄기가 모여들어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 듯 길도 집 앞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어 동네 길로 모여들고 동네 길은 더 큰 마을길로 모여 도시로 간다. 물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며 모여들어 더 큰 물길을 만들 듯 옛길은 작은 골목길이 모여 큰길이 된다. 길에서 떨어져 집이 들어서고 집과 길을 잇



는 골목길이 만들어 지면 그 골목길에 의지한 집이 또 들어서며 삼거리 골목길을 만들고 또 그 골목길에 의지한 집이 들어서고 하여 마치 미로처럼 집과 집을 연결하는데 이는 계획에 의해 길을 내고 땅을 나누어 그 땅 안에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한집 한집 집을 짓고 길을 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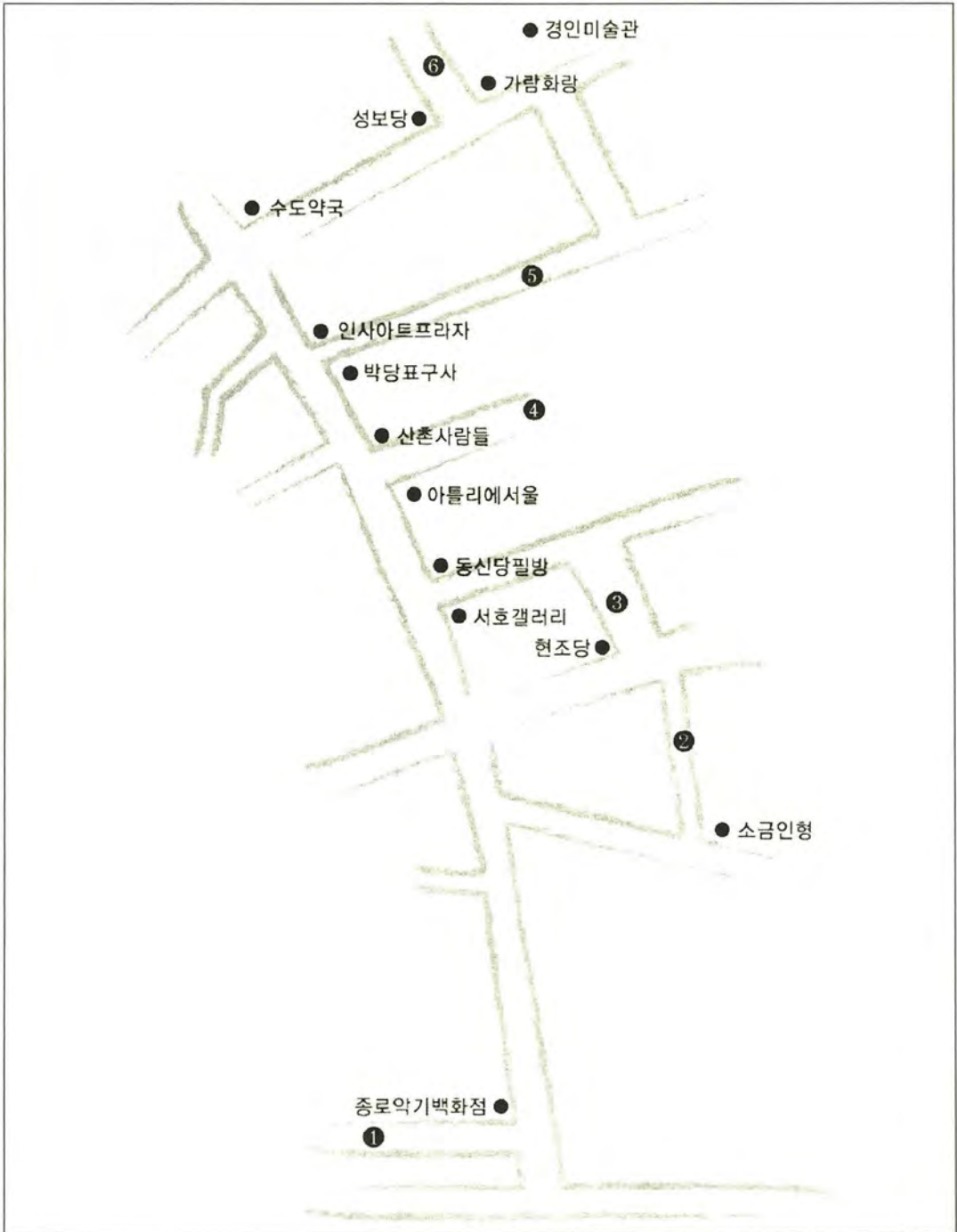
우리의 골목길이 꺾어지고 휘어져 변화가 심하고 길 너비도 들쭉날쭉하며 길과 길이 만나는 방식이 네거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삼거리인 것은 골목길이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토막토막 이어 만들어져 구불구불 꺾어진 길이 된 것이다.

지금 골목길은 거기에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며 있는 그대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이웃과 만나며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오늘까지 여실히 보여주는 기억의 자취이다.

인사동 길도 다르지 않다. 종로와 안국동을 연결하는 인사동 길에 의지해 작은 골목길이 인사동에 있고 그 골목에는 인사동의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옛 사람의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자 이제 인사동 골목길로 들어가 보자.



골목길 탐방지도





인사동을 들어설 때 번잡스러운 찻길 보다는 피마길을 거쳐 들어가 보자. ① 종로악기 백화점 옆으로 난 작은 길로 종로대로로 임금이나 고관대작이 지날 때에도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말을 피해 다니는 길을 평민이나 상인에게 길을따라 내 준 것인데 종로거리의 번잡스러움과 소음을 단번에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골목 입구의 피맛골이라는 안내판은 골목의 술집과 어루러져 마치 피맛을 보는 음식점이 있는 골짜기 같은 느낌이다. 피마로가 어찌 피맛골로 표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길로 들어서 안성여관 앞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길이 막힌 듯, 길을 잘못 들어온 듯 하여 조마조마하며 가다보면 인사동길 초입의 광장과 만나게 된다. 길 중간 즈음에 80년대부터 전봇대 집, 쓰러져 가는 집 등으로 불렸던 막걸리집이 있는데 영화 '오! 수정'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 집에 들어서면 10년도 더 된 낙서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뒷골목 낡은 막걸리집에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이 만만치 않다. 이 골목은 가와바다 야스나리 소설 '설국'의 시작하는 글에 '터널을 지나니 설국이었다'처럼 이 골목을 지나면 인사동을 만나게 된다. 소음과 인파로부터 벗어나 시간의 터널같은 이골목을 통해 인사동을 들어서면 다시 소음과 인파를 만나는데 그 느낌이 다르다. 소리와 사람이 다르다. 재미있는 경험이다.



두 번째 골목은 ② 소금인형에서 시작되어 술과 장미의 나날들에서 예나르로 이어진 골목으로 막힌 듯 끊어진 듯한 길이 태화관길까지 연결된다.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놓여진 골목은 시간에 따라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데 좁은 골목은 성인이 두 팔을 벌리면 맞닿을 정도로 좁다. 골목의 스케일은 좁은 듯 하지만 이웃과 살갑게 만날 수 있는 정도로 옛집의 방이 지금의 방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고 느끼지만 그 방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우





리는 길도 집도 너무 크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골목길을 이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을 떠올려 보면 이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졌을 재미있는 상상이 가능한 곳이다. 골목이 좁아 어른을 만나면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인사 안 하고 못 본척 지날 수 없을 것이고, 아이들이 사방치기를 하고 소꿉장난을 하는 작은 소리들.... 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인사동 골목에 들어가 보라. 보슬비라도 내리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보라. 처마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를 들으며.....



담장장식



물화

골목을 나와 왼쪽으로 꺾어져 ③번 골목입구를 만나게 되는데 태화관길에서 보면 작은 골목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조당에서 시작되어 섬진강, 동신당필방으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인사동 골목 중에 제일 재미있는 골목이다. 태화관 길에서 오른쪽으로 고궁사 건물 담에 천막을 친 가게가 있어 골목 입구인지 가게 입구인지 생각





하게 하는 길인데 지금은 차를 파는 가게가 있어 골목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이웃을 만날 수 있다. 찻집을 지나며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두레를 볼 수 있다. 주인이 단정하게 꾸며놓은 작은 정원과 담장, 솟을 대문 등을 볼 수 있다.



인사동길에서 동신당필방쪽을 바라본 사진

골목을 더 들어가 뒷마루집에서 동신당필방 쪽을 보면 길이 막힌 마당같이 보이는데 사람은 계속 나오고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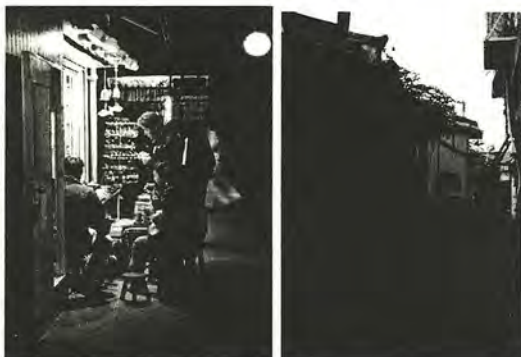
인사동길에서 동신당필방 쪽을 보아도 막힌 길처럼 보인다. 넓은 골목길이 옆으로 살짝 비껴 앉으며 연결되며 사다리꼴의 마당을 만드는데 골목에 비하면 넓은 이 마당은 골목과 골목이 만나는 곳에 있어 아이들의 놀이터로 정월에 지신밟기라도 할라치면 신명나게 풍물을 치며 한판 놀았을 법한 마당이다.



인사동길보다 좁은 이 마당은 인사동길의 인파에서 벗어나 여유있는 걸음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한가로움도 느낄 수 있다.



골목에 놓인 밥솥과 참새들



노천찻집



아플리에서 서울에서 산촌까지의 골목을 가보자 ④
 산촌사람들에서 시작된 골목은 옛찻집에서 왼쪽으로
 꺾이고 영빈장에서 오른쪽, 아리랑민속관에서 다시 왼
 쪽으로 꺾여 산촌에 이르는데 골목을 한번 돌아들 때마
 다 소리의 변화를 가만히 살피면 인사동길의 소리가 점
 점 찾아들며 발자욱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릴 것이
 다. 산촌 대문까지 이르면 골목길은 이미 길이 아닌 어
 느 집 안에 들어선 듯하다. 가만히 골목에 서있는 것만
 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골목에는 물확과 탑
 등 석물을 볼 수 있는데 투박하게 쌓아 놓은 듯 무심하
 게 놓여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라도 있
 고 두꺼비고 있고 연꽃도 있다. 무심히 지나쳤던 땅도
 내려보면 보도블럭 대신 태극문양의 맷돌이 있다. 인사
 동은 보물찾기하듯 꼼꼼이 살펴보면 보는 이가 가진 관
 심만큼씩 조금씩
 보여준다. 곳곳에
 그 의미를 속에
 담고 우리를 기
 다리고 있다.





통인가게 박당표구사를 지나 명신당필방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⑤ 사동면옥 집을 지나 웅달샘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만난다. 이 골목은 작은 막힌 골목들로 여러 개의 삼거리를 만들고 있다. 고살으로도 불리는 이 짧은 골목에서 하늘을 보면 조각난 작은 하늘이 참 이뻐 보였는데 이제는 큰 건물들로 하늘이 가려져 아쉽다. 골목에 높게 돌아앉은 건물은 잠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주고 골목길이 그냥 지나치는 길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골목은 삶을 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앞집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던 좁은 골목에 지금은 낯선 이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지만 아픈 다리를 잠시 쉬었다 가라고 수줍게 작은 자리를 내주었다. 인사동답다.

골목을 빠져 나와 ⑥ 박영효집터의 경인미술관에 들어서면 너른 마당과 뒷마루에 걸터앉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모르는 이도 눈인사 한번 하고 엉덩이 들이밀면 자리의 주인이 된다. 지금은 닫혀있지만 경인 미술관 마당을 지나면 사원과 지리산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앞서 보았던 골목과는 다른 느낌의 길을 만난다. 골목이라 하기에는 넓은 이 길에도 인사동이고 싶은 작은 정성들은 담장을 장식하고 대문을 꾸미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재밌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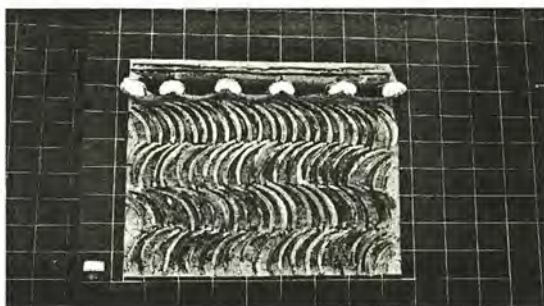


인사동의 숨은 그림들

인사동에서 몇 개의 골목을 살
펴보았다. 옛 시인의 시중에 ‘사
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
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하는 시귀가 있다.



우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이 시귀를 인용하는
데 인사동 골목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
지다. 인사동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먼
저 애정을 가져라. 차를 마시든 술을 하
던 자기 방식대로 인사동과 친구가 되어
보라. 뒷골목 구석구석 다니며 낯설은
것들과 이야기하고 친해져라.



그 후에 주변에 묻고 사진을 뒤지며 알고자 한다면 인사동이 다시 보일 것이다.
골목이 좁아 한사람이 옆으로 돌아서야 마주 오는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골목에서
서로에게 인사하며 골목을 거닐다 보면 서울이 외롭지만은 않다. 테이블 하나 달
랑 있는 귀천에 들어서면 나와 남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대화에 서로 대
답하는 사랑방이 되듯 차가 다니지 못하는 인사동 좁은 골목은 사람이 길의 주인
이고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진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개인으로만
지날 수 없는 곳이 인사동의 골목길이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인사동에서 친구와 만나 묵은 이야기 나누며 차 한 잔 해
야겠다.



북촌의 역사문화유적지

박경룡 ·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4)

■ 산업은행관리가(嘉會洞産業銀行管理家)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4호

시 대 : 1920년대(추정)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8번지



이 가옥은 대한제국 말에서 일제강점 초기에 세워진 재래식에 현대식 생활기능을 도입한 집합 평면식 한옥이다. 이 집은 본채와 행랑채로 분리되어 있는데, 본채는 사랑채와 안채가 연이어져 건축되었고, 대문간 행랑채는 사랑마당에 따로 건축된 큰 집이다.

본채에는 사랑채와 건넌방이 남북으로 놓여 있고, 사랑채는 서쪽에 현관과 홀을 한 칸 내었고, 서남쪽으로 사랑대청이 있어 앞과 서쪽의 정원을 바라볼 수 있다. 대청 동쪽에 사랑 온돌방이 있고, 그 남쪽에 주인 방이 뒷마루로 둘러져 있고, 현관 홀 북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객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도를 통하여 안대청 마루에 이른다.

안대청 마루 동쪽에는 안방을 두고 그 동북쪽에 부엌을 두었으며, 안방 뒤쪽에는 안방의 골방격인 온돌방이 달려 있고, 부엌 동쪽에 마루를 두어 찬마루로 쓰고 있다. 부엌은 동쪽에 외부 출입문을 두었으며, 건넌방의 북쪽에는 뒷방 2칸을 두어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나 안채의 기단은 모두 길게 다듬은 돌로 쌓고, 그 위에 네모뿔대의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굵기가 7촌(寸)이고, 높이가 9자(尺)로서 네모를 접은 약간 민흘림 형태이며, 대청 마루는 통 2칸 대들보를 걸고 위는 5량(樑) 구조로 하였다. 처마는 사랑채와 안채 앞면이 겹처마, 옆면과 뒷면은 홑처마로 하였으며, 기와는 작은 것을 쓰고, 지붕마루에는 망와(望瓦)를 올렸다. 합각벽은 회색과 붉은 벽돌로 길상(吉祥) 무늬를 놓았으며, 합각머리에는 목기연을 달았다.

4) 산업은행관리가, 종친부, 인촌기념관, 관상감 관천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서양풍과 일본풍을 받아들인 절충식 평면을 취하고 있어 재래식에 현대식 생활기능을 도입한 집합 평면식 한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말에서 일제 초기의 개량주택의 과도기적인 건축물이며, 개화기 이후의 문화주택의 초기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 종친부(宗親府)

지정번호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

시 대 : 조선초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번지



전일의 경기고등학교가 자리하였던 곳을 찾으면 정독도서관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 경기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던 동쪽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종친부건물이 세워져 있다.

원래 이 건물은 남쪽의 국군통합병원 서울병원 구내의 테니스장 자리인 소격동 165번지에 있었으나 1979년 12·12사태 발생 후에 특수군부대가 이곳에 자리하면서 1981년 8월에 이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동쪽의 건춘문(建春門)은 종친과 왕의 외척 및 왕의 사위인 부마(駙馬), 상궁·나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문 가까운 곳에 종친부를 두었던 것이다.

종친부는 고려 때 제군부(諸君府)를 1433년에 고친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역대 국왕의 어보(御譜)와 영정(影幀)을 받들어 모시고, 종친들의 봉작(封爵)과 증직(贈職) 등 인사(人事)문제와 종친간(宗親間)의 분규(紛糾) 등에 따른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종친이란 국왕의 부계(父系)에 해당하는 친척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적자(嫡子)에 해당되는 4대손까지, 서자(庶子)의 자손은 3대손까지로 정한 후 이들을 대우하여 군(君)으로 봉하였다.

종친부의 변천을 살펴보면, 조선 말 1864년에는 종부시(宗簿寺)가 합쳐졌다. 그리고 그 명칭도 1894년에는 종정부(宗正府), 이듬해에 종정사(宗正司), 이어서 종정원(宗正院), 1905년에는 종부사(宗簿司)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그 사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조선 초에는 종친을 등용하기 위하여 종친과(宗親科)라는 특수시험을 보기도 하였다. 왕자의 난을 치른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종친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군



(君)의 봉함을 얻지 못한 종친들을 대우하기 위하여 돈녕부(敦寧府)와 같은 관아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종친부 옆에는 공주 및 옹주(翁主)의 남편이 되는 부마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관아인 의빈부(儀賓府)가 있었다.

현재 종친부 건물 규모를 보면 중심되는 큰 건물인 중당(中堂)과 그 오른쪽에 익사(翼舍)가 익랑(翼廊)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에도 오른쪽과 같이 익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고증되는데 화강암을 다듬은 장대석(長臺石) 기단(基壇) 위에 중당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겹처마로 팔작지붕이며, 익사는 중당보다 작은 규모로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 인촌 기념관(仁村紀念館)

시 대 : 일제강점기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32번지 1호

대동상업고등학교 서쪽에는 인촌 김성수(金性洙:1891~1955)선생이 살던 한옥 저택이 있다. 현재는 인촌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문 현판에는 '인촌선생 고거(仁村先生故居)'라고 써어있다.



김성수선생은 정치가이며 교육가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의 부농에서 태어났다. 현재 김성수의 생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는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세계일주를 한 후 귀국하였다. 이어서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1915년에 중앙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후 민족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는 사업체로서 경성방직회사를 세우고, 1932년에는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해에 보성전문학교(현재 고려대학교)를 인수하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좌익세력과 대결하여 싸웠으며, 1950년 제2대 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사임하였다. 그 후 민주국민당 고문으로 재임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 관상감 관천대(觀象監 觀天臺)

지정번호 : 사적 제296호



시 대 : 세종 16년(1434)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번지 2호

이 관천대는 신라 때의 첨성대, 고려시대 개성 만월대와 같이 조선시대에 천문(天文)을 관측하던 시설로 일명 일영대(日影臺)라고 하였는데 세종 16년(1434)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천대는 이곳에서 약간 동쪽 언덕의 원서동 206번지(전 휘문고등학교 자리)에 500년간 위치하였다. 그런데 휘문고등학교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현대그룹 사옥(社屋)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러자 관천대의 이전이 불가피하였으므로 1983년에 이를 해체하여 도로변에 세우게 되었다. 이 당시 복원할 때 원래 위치했던 지반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평지보다 조금 높게 쌓았다.



관천대의 규모는 높이가 3.46미터, 넓이가 2.4미터, 폭 2.5미터 정도되는데 이 대 꼭대기에는 높이 70센치미터, 넓이 70센치미터, 폭 70센치미터가 되는 정사면체의 작은 돌이 놓여져 있고 둘레에는 돌난간이 만들어져 있다.

조선시대의 관상감은 오늘날의 기상청(氣象廳)과 유사한 관아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과 일식·월식을 관찰하는 한편 지상의 벼락, 비와 눈, 서리, 이슬, 지진 등을 관측하고 지리(地理), 달력 제작 등을 담당하였다. 세종 때에는 서운관으로 하여금 측우기를 제작하게 하여 우량을 측정한 것은 유명하다.

관상감 직원들은 엄격한 관측 규칙에 따라 낮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고, 밤에는 매경(更)마다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비상한 현상에 대한 관측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관측을 위하여 서울에는 몇개의 천문 관측기인 간의대(簡儀臺)가 설치되어 있었다. 관상감은 세종 때에 불리운 명칭으로 조선초에는 서운관(書雲觀)이라 하였으며 1894년에 관상소(觀象所), 1907년에 측후소로 바뀌었다.

관상감에 대하여 성주덕(成周惠)이 쓴 『서운관지(書雲觀志)』에는 「관상감 본감(本監)의 하나는 경복궁 영추문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북부 광화방에 있는데 관천대가 있다. 중간에 전쟁(임진왜란)을 만나 다시 창덕궁 금호문 밖과 경희궁의 개양문 밖에 두었는데 모두 관천대가 있다. 속칭 첨성대라고 이른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관상감 본감의 하나는 궁궐 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원서동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궁궐 내의 본감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국왕이 머무는 궁궐을 따라 창덕궁, 경희궁 등으로 옮겨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다.



■ 가회동 백인제가(서울시 민속자료 제 22호)

조선 왕실의 생질되는 한상용에게 의해 1874년에 건축되었다. 압록강의 흑송을 옮겨다 사용하였다고 전하는 한옥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지방의 상류주택들이 사랑채와 안채가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높은 대지 위에 솟을 대문이 서 있고 행랑마당에 들어서면 안채와 사랑채가 연속되어 있다. 조선말의 건축으로 건축연대가 확실(솟을 대문의 기록, 1874년 4월)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옛 한양한옥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주택이다.



■ 안국동 공덕귀가(윤보선가)

서울시 민속자료 제 27호

솟을대문만 봐도 그 크기와 품격이 느껴지는 명택이다. 하지만 곁에서 보는 모습보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서울 한 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데 감동을 받게 되는 집이다.



우리에게 윤보선가로 더 잘 알려진 이 집은 120년 전 조선조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큰 저택이다. 지을 당시만 해도 민가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 99칸이 넘는 대단한 집이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안채, 작은 사랑채, 산정채 그리고 뒤꼍의 부속건물만 남아있다.

윤보선가라고도 불리는데 당시로서는 최신예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안방의 일부를 식당으로 개조하였고, 창도 옛 멋은 지키면서 유리창으로 바꾸어 실용성을 더했다. 이집은 안채, 사랑채, 별당채가 각각 따로 담장을 두르고 있는데 이 점도 인상적이다.

최초의 민주적 정당이었던 한국 민주당의 산실역할을 한 장소로서 건축문화사적으로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재 윤보선 전대통령의 가족이 살림을 하고 있으므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최근 사랑채 쪽은 행사공간으로 내어주기도 한다.



■ 취운정(감사원·삼청동 우체국 일대)

갑신정변의 주동자인 김옥균, 홍영식, 성광범은 취운정 아래 안국동, 재동 방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정세를 토론하고 구상했다고 한다. 갑신정변 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길준은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있는 한규설의 정자에서 유폐생활을 하며 서양문화를 소개한 <서유견문>을 저술한 장소이기도 하다.

■ 현상윤집터(가회동 1-1192)

고종 30년에 태어난 사학자이고 민족대표 48인중 한사람으로 2년간 옥고를 겪었다. 1946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가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초대 총장이 되었으나, 6·25전쟁 중 납북되었다. 저서로는 <조선유학사>가 있다.

■ 홍술해골(가회동 250번지 부근)

정조때 황해감사 홍술해가 장물죄를 범하고 섬으로 귀양가자 원한을 품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구할 목적으로 모반하다가 도리어 관아에 잡혀 죽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의 집을 헐어버리고 집터에 못을 팠다. 이 때문에 뒷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홍술해골 또는 못골이라 불렀다.

■ 손병희 집터(가회동 170-12번지)

현재 가회동 동사무소 일대로 구한말 천도교 지도자였고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선생이 살던 곳이다. 3·1운동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민족대표 33인 중 23인이 독립선언식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최종 화합한 장소이나, 이 곳에서 급작스럽게 독립선언식 장소를 당초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거사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 이상재 집터(재동 68번지)

이상재 선생이 최후를 마친 셋집 자리이다. 이상재는(1850~1927) 사회 운동가, 애국지사로 일찍이 박정양, 홍영식 등과 사귀며 사회개혁에 큰 뜻을 두었다. 1894년 갑오개혁 후 박정양이 내무독판에





오르자 학무 국장으로 신교육령을 폈다. 뒤에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민중계몽에 힘썼고, 기독교 청년회에 들어가 신앙운동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불어넣었다. 여러 차례 일제에 의해 옥살이를 하기도 한 그의 생애는 오로지 일본에 항거하는 애국심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 재동 백송(서울특별시 천연기념물 제 8호, 재동 35번지)

푸르름이 섞인 하얀 얼룩 껍질이 우리나라 백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다. 헌법재판소 내에 있으며 면적은 230m²이고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이다. 나무높이 15m, 가슴높이둘레 2.1m이고, 가지는 동쪽 5m, 서쪽 8m, 남쪽 7m, 북쪽 7m까지 퍼진다. 지표면에서부터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V자모양이다. 두 줄기를 쇠막대기로 가구(架構)해서 줄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동의 백송이 서 있는 곳은 원래 창덕여고의 구내였는데 지금은 그 곳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 있다. 통의동의 백송이 죽고 나서 이 나무가 한국에서 가장 큰 백송이 되었다.



■ 박규슈 집터(재동 83번지)

박규슈의 집 사랑방은 천연기념물 제 8호 재동 백송이 있는 지금의 헌법재판소 서북쪽 빈터로 개화파의 산실이였다. 박영효와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이곳 사랑방에 모여 <연암집>과 서양의 정치경제 역사 지리 풍속 등을 소개한 중국의 신서들을 읽으며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고 한다.



■ 광혜원(재동 83번지)

미국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로 입국한 알렌이 우정국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 준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알렌은 조선 정부로부터 병원 수리비와 경상비 일체를 지원 받고, 진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제중원은 약 4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진료업무가 번창하자 1886년 규모를 넓혀 지금의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 동편으로 이전하였다.

■ 안동별궁

현재 덕성여중 본관 서북쪽에는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친정집인 감고당터(안국동 36번지, 덕성여중고 본관 서북쪽)가 있었다. 감고당은 숙종이 인현왕후의 친정을 위하여 지어준 집이다. 현재는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학원장 공관으로 옮겨졌다. 민유중의 딸로 14세에 왕비로 간택된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모함을 받아 폐서인된 후, 몰락되어 폐가가 되다시피 한 이곳 친정에서 6년 동안 간헐 살다가 잘못을 깨달은 숙종에 의해 환궁되었다. 그러나 3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이 집터는 1881년 안국동 172번지와 합쳐져 안동별궁이 되었다.

원래 안동별궁은 세종 31년 영웅대군의 집으로 처음 지어졌는데 병환이 생긴 세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지 10일만에 서거하여 그대로 빈소로 사용되었다. 영웅대군이 죽은 후 부인 박씨가 이 집을 나라에 바치자 성종은 이곳을 형인 월산대군에게 하사하고 연경궁으로 명명했다. 월산대군이 죽은 후 빈집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후 중종이 승하한 후, 집도 퇴락하여 없어지고 빈터만 남게 된 것을 인조가 인목대비 소생 정명옹주에게 하사하여 인조 3년에 대대적으로 개축한 바 있다.

숙종 34년에 이곳을 왕자인 언령군의 제택으로 선택했고, 철종 때는 언령군 집안의 양자로 들어왔던 은언군의 동생 은신군의 셋째아들 전계대원군의 묘가 이곳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종이 즉위하면서 전계대원군의 묘는 다른 곳으로 어봉하고 그 자리에 별궁을 건립하게 되었다. 고종은 그의 원자를 얻어 왕세자로 책봉한 뒤 가례소를 미리 만들고자 해서 별궁을 건립하여 1879년 9월에 완공했고 실제로 이곳에서 순종의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안동별궁으로 불리던 이곳은 1910년 이후 궁내부 소속 내인들이 거처하다가 총독부 재산으로 귀속되면서 경성부에 불하되어 1973년에 경성휘문소학교가 들어섰고 1945년에는 안동별궁 자리의 일부분이 현재 풍문여고의 자리로 편입되었다.

■ 서광범 집터(안국동 177)

갑신정변 4대 주역 중의 하나인 서광범이 살던 곳으로 안동별궁 북쪽으로 담을 맞대고 있다. 당초 갑신정변 거사의 신호를 안동별궁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했으



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정국 인근 초가집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햇 불을 올리는 장소로 안동별궁이 선택되었던 것은 서광범의 집이 안동별궁과 맞대고 있었던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 사간원터(사간동65번지)

경복궁 맞은편 현대갤러리 부근으로 왕에 대한 충고기관으로 왕의 과실이나 여러 정령의 득실에 대해 간쟁, 논박하는 일을 맡았다.

■ 동십자각(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13호, 사간동 126번지)

동십자각은 경복궁의 동쪽 담과 남쪽 담이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던 망루이다. ‘궁궐’은 궁과 궐을 합친 말로써 ‘궁’은 임금이 사는 규모가 큰 건물을 뜻하고 ‘궐’은 궁의 출입문 좌우에 설치했던 망루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동십자각은 궐에 해당한다.



■ 여운형 집터(계동 140-57)

여운형의 집은 중앙고 방향으로 올라가다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100m 남짓한 언덕길 바로 밑에 있었다. 지금의 현대사옥 뒤편 ‘안동 손칼국수’라는 음식점 간판이 붙은 집이다. 해방 직후 건준 위원장, 인민당 당수 등을 역임하며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에 매진하였던 몽양 여운형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어디서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 중앙고등학교

중앙고 본관은 사적 281호(1937년 9월에 준공한 석조건축물, 박동진 설계), 서관은 사적 제 282호, 동관은 사적 제 28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동 현대사옥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남북축의 일직선 진입로는 해방 직후 건국운동의 주요 동선이며 3·1운동의 발상지로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다.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서 한국 민족주의의 신기원을 이룩한 3·



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그리고 학생 세력이 각각 별도의 거사를 모색하다가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을 중심으로 운동의 일원화를 이루어 내면서 급류를 탔는데 그 주요 거점이 바로 종로의 배후 근거지였던 북촌이었다.



3·1 운동 당시 한용운의 거처에서 100m쯤 언덕길을 오르면 정면에 중앙고등학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정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접어들면 서편의 6·10만세운동기념비와 짝을 이루고 서 있는 '삼일운동 책원지'라는 기념비가 눈길을 끈다. 중앙고등학교 남동쪽 앞마당. 이곳은 3·1운동의 책원지가 된 중앙고보 숙직실이 있었던 곳이다. 동경유학생 송계백이 찾아와 현상윤과 송진우에게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고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전달함으로써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장소다. 기념비 동북쪽 담장가에는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된 숙직실 건물이 3·1정신을 기념하며 서있다.

■ 유심사터(계동58번지/석정골 보름우물터 일대)

유심 출판사는 한용운 선생이 3·1 독립정신을 중앙학교생들에게 심어 주었던 곳이다. 여기에서 출판된 월간지 [유심]은 1918년 9월에 창간되어 같은 해 12월 통권 3호로 중단되었다. 국판, 65면 내외이며, 가격은 18전이였다. 편집인겸 발행인은 한용운이었고, 집필자는 대부분 불교도로 최린, 최남선, 유근, 이광중, 이능우 등이 참여하였다.

■ 석정골 보름우물터(계동 25-1)

우물이 돌로 되어 있어 동네 이름이 석정골이라 불리워졌으며, 이 우물물이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지곤 해서 보름우물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물이 유난히 차고 맛이 좋아 왕궁에서 사용해 왔다는 이 우물은 천주교 박해 당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자 갑자기 물맛이 써져서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이 동네 천주교 신도집에 숨어살며 선교활동을 벌일 당시 이 우물에서 길어낸 물로 영세를 주고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제생원터(계동 142-2/현대빌딩 앞 화단)

태조 6년(1397) 조준의 건의에 의해 지방의 약재를 수납하여 혜민국 동서활인서와 같이 빈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이었으며, 미아 보호도 맡아 보았다. 서울에서는 특히 동활인서에 수용된 빈한한 환자의 치료를 맡았으며, 창고공사의 동녀 수십 명을 뽑아 맥경과 침구법을 가르쳐 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녀로 양성하였다.

■ 이준경 집터(계동 128번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 살던 곳이었다. 영의정 답지 않게 검소하게 사는 그의 집을 멀리서 보면 창고처럼 보이므로 동고(東臯)라는 호 대신 동고(東庫)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일대를 이동고 터라고도 하였다.



■ 경우궁터/계동궁터(계동146번지)

조선 후기 23대 임금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정조의 후궁)의 사당이다. 임금의 생모라도 정실 황후가 아니기 때문에 위패가 종묘에 들어갈 수 없어 따로 모신 별묘로 사당을 짓고, 궁호를 경우궁이라 하여 위패를 모셨다.

고종 21년(1884)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김옥균, 홍영식, 박영호 등이 고종을 이곳으로 모신 뒤 혁신내각을 조직하였던 곳이다. 그런데 경우궁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 방한 시설은 물론 음식 반입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튿날 오전 10시경 경우궁 남쪽에 고종의 사촌형 이재원이 살던 계동궁으로 처소를 옮긴다. 그리고 그 날 오후 5시경 민비와 대왕대비의 완강한 요청으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갔다.

결국 갑신정변은 그 다음날 오후 3시경 청국군 1500명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면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3일 천하의 과정에서 정변의 현장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경우궁과 계동궁 터는 지금 현대사옥 구내에 편입되어 있다.

■ 북영터(원서동1번지 일대)

창덕궁 흥복문 밖의 원서동 1번지는 훈련도감의 북영이었다. 이곳은 수도를 수비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으로 훈국이라고도 했으며, 임진



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관청이다. 북영이었던 곳은 폐지 이후 무관학교와 유년학교 자리로 사용되다가 1923년 조선시가지 개수령 이후 경성부 일대에 대한 정비로 점차 주택지구로 바뀌어져 지금은 전형적인 서울 북촌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 발원하기 시작한 개천의 이름을 북영천이라고도 하였는데, 지금은 북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승문원터(계동 146번지)

승문원은 중국과 일본문서의 관장 및 이문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 북영터(원서동1번지 일대)

창덕궁 홍북문 밖의 원서동 1번지는 훈련도감의 북영이었다. 이곳은 수도를 수비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으로 훈국이라고도 했으며,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관청이다. 북영이었던 곳은 폐지 이후 무관학교와 유년학교 자리로 사용되다가 1923년 조선시가지 개수령 이후 경성부 일대에 대한 정비로 점차 주택지구로 바뀌어져 지금은 전형적인 서울 북촌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 발원하기 시작한 개천의 이름을 북영천이라고도 하였는데, 지금은 북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홍문관터(계동 146번지)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기구로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 사적의 관리, 문헌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 노백린장군 집터(계동 1번지)

노백린은 육군 연성학교 교장과 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냈으며, 1907년 안창호 등과 신민회에서 활약했다. 1914년에는 하와이로 건너가 박용만 등과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군사훈련에 힘썼고,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을 맡았다.





■ 신선원전

신선원전은 조선시대에 역대 국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신 궁전을 말한다. 어진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옮겼다가 불에 타 모두 없어졌다. 신선원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 단층 2익공양식의 팔작지붕으로 현재 창덕궁만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 박인환 집터(원서동134-8)

모더니즘 시인으로 찬사를 받았던 박인환(1926~1956)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종로에서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경영하면서 많은 시인들과 알게 되어 1946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 등은 널리 애송되는 시이다.

■ 송진우 집터(원서동 74번지)

송진우는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으며 중앙중학교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였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1년 반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감 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민족의 대변지로 이끌었다. 해방 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참여 요청을 거절한 후 김성수와 함께 우익정당인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반탁운동 당시 온건론을 펴다가 강경파들에게 피살당함으로써 해방 후 정치테러의 첫 희생자가 된 인물이다.

■ 임규 집터(원서동 54번지)

임규는 철종 14년(1863)에 태어났으며,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때 48인의 한 사람이었다.

■ 빨래터(원서동 28번지 일대)

창경궁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빨래를 했다하여 빨래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서 돈을 받고 빨래를 삶아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도로로 복개되어 일부분만 남아 있다.



■ 송현동 49번지

미 대사관 뒤쪽으로 난 길과 대사관저 북쪽일부는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이 살



던 곳이다. 이후 선조의 첫 번째 사위인 달성위 서경주에게 이양되었으며 그래서 이 집을 달성위궁이라고도 불렀다. 그 후 조선 후기 영의정인 심상규의 소유가 되었는데 수백 칸의 건물을 짓고 정원도 화려하게 꾸며 궁궐이라 말할 정도였는데, 신하의 소유치고는 집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상소로 귀양가게 되었다. 다시 이 집을 구한 말의 지사인 김석진이 매입하였는데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며, 한일합방이 되자 음독자결하였다. 그가 자결한 후 가족들은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집을 내놓고 떠났는데, 그 후 조선식산은행에서 매입하여 직원관사로 사용하였다. 광복과 함께 적산재산으로 접수되었는데 해방 이후 서울에 진주한 미군의 숙소로 사용되다가, 1949년 미국대통령 특명 34호와 '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송현동 49번지 일대를 적산재산으로 몰수하여 미대사관 직원 제2관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있으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고 있다.

■ 소격서터

소격서는 도교의 사당이다. 태조 5년(1396) 정월에 도교의 제사의식을 행할 목적으로 소격서라는 중앙관청을 이곳에 건립하였다. 성리학자들이 소격서를 없애려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연산군과 중종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 규장각(소격동 165번지)

규장각은 왕가의 계보, 기록, 친필 같은 문서를 보관하던 관아였다. 원래 홍문관에서 보관해 왔던 이 문서들은 홍문관의 폐지로 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수십만권에 달하는 책을 규장각으로 옮겨 소장하였다. 규장각은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 많은 책을 편찬하였다. 그 중에서도 매일의 정사를 기록한 <일성록>은 대표적인 것으로, 정조 때 편찬하기 시작한 이 편년체 사서는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규장각은 정조 즉위년에 설치하였으며, 1910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규장각의 장서가 옮겨졌다가 광





복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 대학 중앙도서관의 장서로 취급되었다.

이후 1975년 서울대학교를 관악캠퍼스로 옮기면서 규장각 도서관리실 도서로 별도 관리하였고, 1990년 9월 11일에는 서울대학교 안에 신축한 규장각으로 이전하였다.

■ 정독도서관

1976년에 설립된 시립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도서관이다. 40만권의 도서가 무료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며 넓은 열람실로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석깊은 도서관이다. 이곳은 경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가 강남으로 옮겨갔으며, 종친부, 김옥균 선생 집터, 성삼문 집터, 화기도감터와 같은 많은 사적과 사적지가 위치하여 있다.

■ 김옥균 집터(화동 1번지)

김옥균은 조선시대의 정치가이자 개화운동가이며 개화파의 핵심인물이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던 중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과 함께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박규수집의 사랑방에서 교분을 쌓은 그는 세차례의 일본방문을 통하여 쇄국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옥균은 개화당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우정국 낙성연을 계기로 수구파를 제거할 것을 계획하고 한규직 등 수구파들을 제거하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만에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 각지를 방랑하다가 1894년 상해로 건너가 동화양행 객실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당했다.

■ 성삼문 집터(화동 1번지)

성삼문은 1418년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외가에서 성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하고 세 번 묻는 소리가 들려와 이름을 '삼문'으로 지었다고 한다. 성삼문은 1438년(세종20) 문과에 급제하고 이어 1447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집현전 학자로 세종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성삼문은 집현전의 여러 벼슬을 거쳤고 세종을 가까이 모시면서 좋은 건의를 많이 올렸는데 글씨와 문장 솜씨에도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때 성삼문은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이개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뒤이은 문종마저 일찍 죽자 1452년 세종의 손자인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성삼문은 옥새를 꺼안고 통곡하였다. 성삼문은 세조(수양대군)에 반대하여 아버지 성승과 박팽년, 박중립, 이개, 유성원, 김질 등과 함께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여 이개, 하위지, 유응부와 함께 붙잡혔다. 세조가 직접 문초하면서 회유했지만 성삼문은 세조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세종과 단종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다. 결국 성삼문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사형을 당했다. 성삼문 집터는 성삼문과 그의 부친인 성승이 살았다고 해서 성선생터라고도 불렀으며, 400년된 소나무와 '성선생수식송'이라고 새겨진 석비가 있었으나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소나무는 누군가가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들었고 석비는 광복 직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 북정터(화동 35번지)

조선조 정도 이래 궁중에서 사용하던 북정(북지물, 북주우물)이라는 우물터가 있었다.

■ 장원서터(화동 23번지)

조선시대 궁중 정원의 꽃과 과원의 과일나무를 관리하며, 수시로 궁중과 관아의 꽃과 과일을 공급하던 관청이다. 장원서는 끊임없이 과수의 수종을 개량하고 제주도의 감귤을 남해안에 이식하는 등의 일도 수행하여 오늘날의 원예연구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화기도감터(화동 1번지 일대)

병조에 예속된 임시관청이었던 화기도감이 있던 곳이다. 1614년(광해군 6년) 임진왜란 때 왜병의 조총에 대항하는 화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조총청을 개편한 것으로, 청나라가 강성해지자 이에 대비하여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했다.





■ 맹사성 집터(삼청동 35-119)

조선조 세종 때 명재상인 맹사성이 살던 곳으로 맹현이라고 하였다. 온양에서 태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7일동안 단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 초기 황희와 함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시와 음악에도 뛰어나 스스로 악기를 제작하였는데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직접 만든 피리를 불며 지냈다고 한다. 작품에 <강호사시가> 4수가 전한다.



■ 번사창(삼청동 28-1)

1982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5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금융연수원 안에 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말 근대식 무기를 제작하던 관아인 기기국 소속의 기기창 건물이다. '번사'라는 말은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용액을 부어 주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병기 공장이 건축된 것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지 8년 뒤인데, 당시는 무기의 근대화를 위해 새 제도를 강구하고 근대식 군사훈련과 무기제조에 힘쓰던 시기이다.



■ 북창터(삼청동 28-1)

태조 때 설치한 군기시 창고인 별창으로 군기시의 북쪽에 있었다 하여 북창, 화약을 제조했으므로 화약고터라고도 불렀는데, 한규설이 이곳 깊숙한 골짜기에 군기창과 기기창을 설치하여 근대 개화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시나마 국방에 대비하였다. 일제 때에는 세균검사실로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국립보건원이 이 터를 사용했으며, 지금은 금융연수원에서 매입, 그 소유가 되었다.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 이야기 마당

인사모란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인사동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인사동은 느껴야만 합니다.
1개월에 1회 정기모임을 통해서
인사동 골목길 작은 식당에서부터
인사동과 북촌지역의 갤러리투어,
박물관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에 1회씩 우리 역사문화유적지를 찾아
전국으로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도시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장승 돌아보기

최광미

올해는 서둘러 답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제는 벽수 장승 돌아보기.

전남 승달산 법천사 입구에 - 아마 옛날 옛날 가난한 선비네 머슴이나 했을 것 같은 외소하고 움츠린 듯한 모습을 하고 변하는 세월을 성실히 지키고 있어 마음에 따스함이 흐르게 한다.

차에서 내려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며 한참을 올라간 목우암.

작은 암자, 작은 공간에 아주 커다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마루 끝에 앉으니 오래된 매화나무 한그루엔 매화꽃이 가득 안겨있고, 옆엔 동백꽃이 매화못지 않게 자기 모습을 한없이 불태우며 우리의 봄을 가득 채워 준다.

차를 돌려 한참 후에 도착한 쌍계사터. 인적이 없어 우리 일행만이 즐거운 수다를 풀어놓으며 한참을 올라가보니 장동건처럼 잘생긴 석장승과 그 옆에 흐르는 물위에 돌다리, 장승과 돌다리가 가까이 멋지게 어우러져있다. 아주 멋지게

조금 더 오르니 주춧돌과 부서진 기왓장들이 널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커다란 절터였겠지?...

멋진 장승도 이곳을 늠름하게 지키리라 믿으며 내려오는 길에 노선생님의 진도 아리랑 한소절이 봄길에 우리들을 흥겹게 만들어 주신다.

또다시 한참을 돌려 도착한 불회사 입구.

통방울눈과 주먹코가 돋보이는 석장승이다. 땀아놓은 수염이 재미있었는데 인사동의 북인사 마당에 있는 장승이 이곳 장승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하는데 살펴보니 속세로 나온 장승(?)이라서인지.....

불회사 앞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지개는 하늘에 떠있고, 목우암에서보다 많은 동백꽃이 뒷산을 감싸안고 꽃들을 피운다. 노선생님의 말씀이 10년 전보다 유적지 모습이 많이 변했다 하시는데 앞으로 10년 후엔 얼마나 변하게 될까.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을 잡고 이곳저곳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담고 답사 일정을 마친다.

--- 3월 ---



안동답사를 다녀와서

주영아

몇 해 전으로 기억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의 하회마을을 둘러본 후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 인사모 일행은 안동으로 몸을 실었다.

김영복 선생님의 걸쭉한 입담과 함께 어느덧 우리는 풍기 나들목을 거쳐 소수서원에 다다랐다.

소수서원은 ‘이상향’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한 사람의 상징이다.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의 대학자 안향의 영정을 모셔 백운동서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조선시대의 사립대학격인 이 서원은 조선 중후기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학문과 정치의 요람이 되었다고 한다.

서원으로 드는 길은 솔숲의 향이 그윽하면서도 우리 일행의 심신을 상쾌하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수백 그루의 적송 옆으로 소백산으로부터 흘러 온 죽계수가 운치있게 흐르고 있다.

서원 정문을 들어서면 유생들이 모여서 강학을 듣던 명륜당이 있는데 이것이 서원의 본관인 셈이다. 紹修書院 이란 현판도 여기에 달고 있다. 강학당 뒤에는 원장이 머물던 직방재가 있고 그 옆으로 교수들의 방인 일신재가 있다. 일반 유생들이 머물던 학구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듯 멀찍이 물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서원 앞에 죽계수가 흐르고 그 냇가의 바위에 붉은 글씨로 ‘敬’(경)자가 새겨져 눈길을 끈다. 이 ‘敬’자에는 전설 같은 사연이 있다고 김영복 선생님이 이야기 보따리를 꾸셨다.

이 서원 터에는 신라 때 세워진 속수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이곳 순흥에서 금성대군과 의사들의 단종 복위거사 계획이 탄로나면서 세조가 보낸 군들이 의해 속수사도 불타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장되었다.(그때 시신에서 나온 피가 죽계를 타고 흘러 지금도 피끝마을로 불리고 있다). 이때부터 밤만 되면 울었는데 이에 주세붕이 바위에 공경의 의미가 담긴 ‘敬’(경)자를 새겨 원혼들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소수서원을 지나 계속 들어가면 기념관이 나오고 그곳에선 탁본도 직접 뜨게끔 해 주셨다. 덜 마른 탁본 한 장 들고 다음으로 간 곳은 병산서원이다.

굽이 굽이 낙동강 지류를 따라 병산서원에 도착!!!

우리 일행은 병풍처럼 펼쳐진 서원과 그 앞의 병산의 모습에 심장이 잠시 멎는 듯 아무 말도 못 했다. 병산서원은 원래 풍악서당을 류성룡 사후 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으로 개조한 것이다. 복례문을 들어서면, 만루대가 서 있고, 동재와 서재, 입교당이 있으며, 서원 맨 위에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한 존덕사가 있다. 1863년에 '병산'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루대에 둘러 앉아 경치도 보고 선생님의 강의(?)도 들으니 나이를 거꾸로 먹어 마치 수학 여행 온 학생같다.

질푸른 낙동강과 병산서원의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간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은 이름값이라도 하려는 듯이 넓은 주차장과 함께 입장료도 받았다. 어쨌든 도산서원은 이전 서원들과는 달리 계획적인 잘 정돈된 구도로 선비의 곳곳함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잘 꾸며진 정원과 주위의 울창한 원림은 퇴계 이황선생님이 금방이라도 위엄있는 자태로 나타날 것만 같다.

이때 박현희氏가 '병산서원이 예체능을 교육하는 곳이라면 도산서원은 문과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도산서원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답사한 곳은 이글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엘리자베스여왕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한 곳.. 하회마을이었다.

낙동강이 'S'자로 굽이 흐르며 마을을 감싸고 있어 하회(河回)라는 지명이 붙은 하회마을은 다양한 고가옥, 고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민속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동성마을로 양진당과 충효당 등 조선 전기의 고택들과 하회별신굿탈놀이, 선유줄불놀이 등의 민속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서 하루쯤 묵으면서 전통 음식과 술도 한 잔 하면서 즐기고 싶은 곳이다.

아침에 훌쩍리던 비도 어느새 맑은 하늘 속에 감춰지고 우리 일행들 마음 속에도 조선선비의 기개와 멋으로 충만된 것 같다. 멋진 여행이었다.

--- 5월 ---



전주 인근 사찰답사를 다녀와서

윤지원

2004년 6월 10일 인사모 회원 10여명은 아침 일찍 조계사 앞에서 모여 전라북도 전주 인근 완주군 진안군 일대의 사찰 다섯 곳을 살펴보는 일정으로 떠났다. 늘 그렇듯이 하루 일정의 답사여행이지만 일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즐거움과 새롭게 무엇인가 느끼고 배운다는 설렘으로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참이다.

전북 마이산 탐사, 천황사, 송광사, 화암사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충남 논산의 쌍계사를 돌아보는 계획이다.

마이산탐사

우리가 많이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귀에 익게 들어온 마이산의 탐사로 가는 길 - 마이산은 동봉과 서봉, 두 개의 암산(岩山)으로 구성된 무척 특이한 모양의 산이었다. 동봉은 암봉우리, 서봉은 수봉우리라고 부르며, 오랜 세월의 침식작용으로 두 개의 큰 봉우리가 깎아 세운듯이 솟아 있어서, 말의 두 귀가 쫓긋 솟은 모양과 같다하여 馬耳山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한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모퉁이마다 여러 방향에서 보는 말의 귀 모양이 다 다른 것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가까이 도착해서, 그 퇴적암은 오랜 세월 전에는 바닷 속이었다고 하는 노승대 선생님의 설명에, 고등학교 지학 시간에 배웠던 판의 용기에 의한 지각변동의 생생한 현상이 눈 앞에 펼쳐져 있음을 확인했다. 탐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을 포개 엮은 외출 돌탑이 팔십여 기나 되는데, 약 50년 전에 이갑용이라는 분이 30여년에 걸쳐 인근 30리 밖에서 돌을 날라다 쌓았다고 한다. 긴 세월의 온갖 풍상에도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점과 그 분의 인고의 수행 과정은 지금도 불가사의로 남아 경탄을 자아낸다.

천황사

전북 진안 운장산 자락의 조용한 사찰인 천황사는 18세기 벽암 각성스님이 지으셨다고 한다.

아름다운 고단청과 관광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깨끗하고 조용한 옛 절의



고즈넉한 운치-반가이 맞아주시는 맑은 얼굴의 주지스님, 그리고 외지인을 보고
짓어대는 누런 견공-널리 알려진 이름난 사찰의 북적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대웅전에 들어서자 세 분 부처님의 크기가 무척이나 규모가 큰 점에 놀랐다. 불
상의 큰 규모로 미루어 원래는 대웅전의 높이와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컸으리라
고 한다. 또한 조선조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사찰들은 석가모니불 좌
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모시는 형태로 되어 전쟁으로 많이 죽거나 다친 이들
의 극락왕생과 쾌유를 비는 기도도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스님의 정성스런 녹차 대접을 받으며 요사채 뒷마루에 앉아 땀을 식힌 후 다음
행선지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송광사

완주 송광사 또는 종남산(終南山) 송광사라하여 전남 순천시 송광면에 있는 송
광사와는 다르다. 인조 때 역시 벽암 각성스님이 세웠다고 한다. 지금은 보수중인 이
곳 입구의 소조 사천왕상은 무척 규모가 크고 영험이 뛰어나 다른 사찰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정초에 이 곳 사천왕께 기도를 하며,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단
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뜰에 들어서자 십자각 모양의 특이한 종루가 눈길을
끌었다. 1857년 철종 8년에 세웠다고 하는 느티나무 기둥의 자연스러운 멋은 보
기 드문 특징이었다. 휘어진 나무기둥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화강
암 주춧돌에 기둥의 휘어진 곡선모양 그대로를 컴퍼스로 그려서 돌을 파내고 나
무기둥을 넣어 세웠다고 하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릴 줄 아는 이러한
방법을 그랭이기법이라고 한다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대웅전에 모셔져있는
소조 삼불좌상은 남아있는 소조(석고진흙) 불상 중 가장 크다고 한다. 대웅전을
지나 뒤쪽의 나한전을 둘러보았다.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상들을 모신 곳이므로
이곳의 主佛은 항상 석가모니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화암사

다음 목적지-깊고 깊은 산중에 위치한 특이한 건축양식의 화암사-오늘 답사
일정의 클라이맥스라고나 할까. 전북 완주군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위치. 아름
다운 비경의 환상적인 산길을 계곡을 따라 삼십분쯤 걸었을까 급한 벼랑의 경사로
를 올라가기 위한 붉게 칠한 철제계단과 다리가 나타났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
아래로 흐르는 자그마한 폭포를 내려다보며 아직 가보지 못한 중국 실크로드의



돈황의 석굴로 오르는 아슬아슬한 계단을 머릿속에 상상해본다.

땀을 닦으며 도착한 화암사. 이처럼 깊은 산 속에 이리도 고적하게 옛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찰이 또 있을까. 신라 문무왕 이전에 창건되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 절에 머무르면서 수도하였다 한다. 1425년 성달생이 중창하였다.

건물의 배치와 외관이 무척 특이하다. 누각과 그 옆의 대문으로 가로막힌 기와 집들은 정면이 외부와 단절된 느낌으로, 사찰이라기보다는 서원과도 같은 인상이다. 돌을 쌓아 만든 석축과 기둥들 위에 세운 누각. -우화루. 돌계단을 따라 올라 대문을 들어서면 우화루 모퉁이를 지나야 중심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우화루와 극락전, 동서로는 적묵당과 불명당이 배치되어 건물들이 사각으로 둘러 있는데 보수 중이라 건물의 내부는 들어가 볼 수 없었다. 마당 앞으로 솟아있는 자연 암반 위의 소박한 장독대와 작은 산신각도 인상 깊었다. 원래는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극락전 등 몇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하니 아쉽기 그지없다. 개인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심산유곡의 독특한 유적지까지 안내해주신 노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다.

쌍계사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충남 논산의 남방에 위치한 쌍계사에 이르렀다. 보물 408호로 지정된 대웅전의 꽃무늬 창살은 매우 정교했으며 대웅전에 들어서자 내부공간의 화려함은 그 외관보다 더욱 경이로웠다. 정교하고도 화려하게 꾸며진 단집과 용들, 날개를 활짝 편 극락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불전의 내부는 정토의 세계를 너무도 아름답게 상징화하였다. 석가모니불 위의 단집에는 적멸보궁, 아미타불 위에는 칠보궁, 약사여래불 위에는 만월궁이라 쓰여져 있어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아름다움이 신비스럽게 표현되어 있었다.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서울을 향해 떠났다. 오늘의 즐거웠던 일정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와 뜻깊은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다음 답사 때에도 기억하면서.....

---6월---



평창동 갤러리 투어

이성미

오랫만에 갤러리 투어가 있는 날,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렸다. 인사 갤러리 앞에서 반가운 회원들과(16명) 모여 갤러리 순환버스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가나 아트에 내려서 기대하던 'Red' 전을 보았다. 1층엔 '이중섭', '윤명로', '김홍수' 등의 붉은 화면이 가득한 비구상의 그림들...

2층에는 조선시대의 생활철기들과 진사가 들어간 연적, 도자기, 붉은 주철의 3층 장 목가구들... 정말 우리 것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에게 감탄 또 감탄을 하고.... 오랫동안 최고의 전시를 경험했다는 모두의 의견 일치로 보였다. 마침, 가나 앞의 궁갤러리에서 중국 가구, 도자기전을 보았는데, 두 나라의 문화를 비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덕길을 걸어서 김종영 미술관으로 향했다. 마침 열리고 있는 정현의 조각전을 보고나서 넓은 테크 옆의 유리벽 안에 위치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각적인 즐거움과 미각적인 즐거움 또한 커피향 같은 정담들을 나누며,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우리들만의 시간을 즐겼다.

토탈 미술관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설치미술전이 있었는데, 짐 자무시 감독의 '천국보다 낮선'이란 동명의 제목으로 비디오 아트를 비롯한 요즘 현대미술의 주류인 미디어 아트를 접할 수 있었다. 자연 풍광과 함께 위치한 미술관들이 한층 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평창동을 견고 또 걸어서 갤러리 세줄에 가니 '심재현 조각전'을 하고 있었다. 마침 작가 선생님께서 직접 작품 해설을 해주셔서 더욱 감상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구도자의 자세로 임한 종교적인 느낌의 대형 조각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A Wing of shade' (그늘 날개)라는-모터에 의해서 여섯 개의 구조가 엇갈리게 움직이는 작품에 대해서 작가와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음악과 함께라서 더욱 좋았다.

평창동 언덕을 거닐며 좋은 시간을 보낸 우리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사간동 금호 갤러리에서 내렸다. '김중학 민예골동 소장전'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일이 오픈날이었지만 다행히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단아한 목가구들을 마주 보며 '좋다'라는 탄성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우리의 옛것들을 실컷 마주 대하여 눈사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하루였다.

아쉬움을 남기고 작별을 하였는데, 남은 몇몇은 인사동 '장자의 나비'에서 맛있는 한정식을 먹으며 장자의 나비꿈과 같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달의 더욱 멋진 전시회를 기약하였다.

---10월---



아라리의 동네 정선

박기순

여행이 주는 여유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을 구축하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간이다. 그 동안 몰랐던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로 인해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키워 준다는 말처럼 여행은 우리에게 가끔은 필요한 것 같다. 여행은 단지 떠나고픈 욕망을 식혀줄 뿐이다. 그러나 떠나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올해 봄에 인사동학교와 인연을 맺은 후 여러 차례 답사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기회를 잡은 것에 내심 기대에 들떠 있었다.



새벽 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해 강남쪽에서 더 많은 회원을 태우고 우리는 서울을 힘차게 출발했다. 달리는 도로를 질은 안개가 맞아 주었고 서울을 벗어날 때 짙 발견한 하늘 속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운 색상의 조화에 감탄했다. 궁벽한 산간의 삶을 달래준 아라리의 동네, 무릉도원이란 옛 이름을 가진 정선은 태백산맥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고 사방으로 산이 겹겹이 넘쳐난다. 여러 산에서 흘러내린 수많은 갈래의 물줄기가 조양강을 이루고 조양강은 서쪽으



로 흘러 남한강의 상류가 된다. 오늘의 일정은 아우라지, 정선 5일장, 점심, 화표주, 소금강, 물운대, 정암사란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진부 교차로를 지나 지방도를 이용해 정선으로 가는 길을 택하신 노승대 선생님은 이 길이 가장 아름답고 한적하고 가볼만한 길이라고 설명하셨다. 가는 길을 우리와 줄곧 동행한 강이 조양강 이었는데 층계가 된, 높이 각 아지른 듯한 절벽과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흔들거리는 차속에서 정선은 넓은 땅을 가진 행정구역인데 비해 인구는 많지 않아 선거철에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잡상스런 생각을 혼자 해 보았다.

처음 행선지는 아우라지, 가는 길에 소담한 약수터에 들러 잠깐 목을 축였다. 드디어 아우라지강 건너 여량을 건너다 볼 수 있는 구절리에 도착했다. 강가에는 아우라지 비가, 건너편에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묵묵히 세월을 지켜내고 있었다. 아우라지는 북면 여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량이라는 이름은 토질이 비옥하여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어 식량이 남아돈다는 뜻을 가진 동네다. 그나마 첩첩산골 정선땅 중에서 평지이며 산이 곱고 물이 맑은 아우라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곳이란다. 또, 북쪽 구절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절천과 남동쪽 임계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 한데 어우러지는 나루터라는 뜻이기도 하다. 구절천은 돌이 많아 거칠게 흘러서 양수(남자), 골지천은 잔잔하게 흐르는 모양에 빗대어 음수(여자)로 여긴단다. 겉보기에는 물이 맑고 잔잔하지만 맑고 깊숙하여 그냥 건널 수 없어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데 샅대를 저어가는 배가 아니라 강물 위에 매어놓은 줄을 당기는 배를 타고 간다. 그 나룻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이 든 아저씨의 구수한 설명을 들으며 ‘누가 나의 처지와 심정을 알리’라는 뜻의 아라리에서 연유했다는 정선아리랑을 가슴속으로 느껴보았다. 건너 편에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세워져있다. 사랑하는 여량의 한 처녀와 구절리 너머 유천리에 사는 한 총각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백을 따러 가기로 했는데 밤 사이에 비가 내려 불어난 강물에 나룻배가 떠내려가고 말았다. 안타까움으로 서로 바라만 보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을 뱃사공이 정선아라리로 불러냈는데 그이가 장구를 잘 치는 아저씨(일명 지장구)이고 지장구는 실제 인물이며 울동백 따러 가기로 했던 아가씨가 바로 처녀상의 주인공이란다. 또 처녀상에 얽힌 사연인 즉 여량의 한 처녀가 강을 건너 시집가는 날 배가 뒤집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뒤로 해마다 2~3명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처녀상이 세워진 이후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졌다고 한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짜리골 올동백(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다 쌓이지
잠시 잠깐 님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시의 올동백(올동박)은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꽃의 동백이 아니라 2·4월 이전에 아주 작고 노란꽃(산수유꽃과 비슷)을 피우는 생강나무이며 검은색 열매로 기름을 내어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가지나 잎을 꺾으면 생강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단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떼돈 벌었다’라는 말은 정선사람들이 남한강 천리 물길을 따라 한양까지 목재를 날라 돈을 벌었는데 벌이가 썩 괜찮았나보다. 바로 거기에서 유례한 말이 ‘뗏목을 타고 번 돈’, 즉 떼돈이란단다.

먼 곳을 바라보며 그이를 기다리는 아우라지 처녀상을 보며 가슴속에 그리운 사람을 생각해 보며 그곳을 떠났다.

가는 길에 일곱 신하가 은거했다는 거칠현동을 지나가며 노승대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일곱 충신들이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자신의 비통함을 한시로 불렀는데 한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뜻을 쉽게 풀고 감정을 살린 것이 오늘 날 전해지는 아라리이며 이 곳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란다. 참고로 말하자면 팔도아리랑 중 정선아리랑이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어서 정선 5일장을 둘러봤고 메밀무침과 감자떡(콩이 가득 담긴)도 별미였다. 시장 답사를 끝내고 ‘금강산도 식후경’ 식당으로 향하는데 시내를 통과하는 정선 축제 가장행렬을 만나는 바람에 길이 막히고 말았다. 정선군민이 모두 다 참여한 것 같았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약간 짜증이 났지만 동행한 회원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짜증은 이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점심으로 황기를 넣어 삶은 ‘족발’과 ‘콧등치기 국수’(메밀로 만든 굵은 국수를 된장 양념 국물로 맛을 낸 국수인데 먹을 때 콧등을 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를 맛있게 먹고 서비스로 주신 두부부침과 황기를 넣은 수정과로 마무리했다.

맛있는 점심으로 마음이 풍족해진 우리들이 도착한 곳은 ‘화표주’. 산봉우리 사이에 뽕죽하게 깎아 세운 듯 우뚝 솟은 망대모양을 한 기둥바위가 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맨 꼭대기에는 나무와 돌로 쌓은 탑이 있어서 누군가 사람의 손길



을 느낄 수 있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냇물과 절벽의 절경을 감상하며 설암(소금강)에 도착했다. 냇가에 하늘 높이 솟은 채석강을 연상하는 기암괴석과 나무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금강산을 닮았다고 해서 소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정말 기묘하고 장엄했다. 어디론가 내려가셨던 노승대 선생님이 다래를 한웅큼 따오셔서 모든 회원에게 나누어 주셨다. 작은 키위를 먹는 느낌이였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서 만난 물운대였다. 아래를 내려다 보면 머리를 아찔하게 하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층암절벽과 넓은 반석들이 많아서 야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절벽 아래는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절벽에는 늙은 소나무가 고목이 되어 서 있었다. 또 장사익씨를 연상케하는 창법으로 노래를 해 주신 노승대 선생님의 노래에 세상의 욕심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였다. 노래의 여운을 가슴에 안고 이 답사의 마지막인 정암사로 향했다.

무릉도원이라는 정선, 첩첩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있고 그 아래로 맑고 깊은 물, 아직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히 냇을 잃을 만 했는데 사북과 고한을 찾아드니 슬픈 마음이 저절로 드는 집, 가게 등 건물이 검고 낮게 펼쳐졌다. 이 길 꼬트머리에서 정암사를 만났다. 정암사 창건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면 자장율사가 진덕왕때 대국통의 자리에서 물러나 강릉 수다사에 살고 있었는데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내일 너를 대송정에서 보리라'하셨단다. 대송정에 이르니 문수보살이 나타나 '태백의 갈반지에서 만나자'하고 사라지셨단다. 그 말에 태백산에 갈반지를 찾아 헤매다 큰 구렁이들이 나무 아래 서로 얽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갈반지라 여겨 '석남원(정암사)'을 지었다고 한다. 정암사에 도착해 일주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고색창연한 적멸보궁이 산을 배경으로 서있다.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수마노탑에 봉안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수마노탑에 불사리가 있기 때문) 입구의 계곡에는 열목어가 살고 있는데 이 열목어는 청갈하고 청정한 곳에서만 사는 빨간 눈을 가진 고기라고 한다. 적멸보궁 입구에 선장단이라는 고목이 있다. 자장율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두었던 곳에 살아있는 나무와 어우러져 수백년 동안 푸르게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고사목으로 남아있다. 고목의 몸통이 정말 신비스러웠다. 적멸보궁에서는 수마노탑이 보이지 않고 뒤쪽으로 급경사를 이룬 계단을 통해서 수마노탑에 당도할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이성미씨가 힘들어 하는 모습이 귀여웠고 격려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수마노의 뜻을 풀어보면 ‘마노석’은 보석의 하나로 말의 뇌수를 닮았다는 뜻이고 ‘수’는 자장의 불심에 감화된 서해 용왕이 마노석을 동해 울진포를 통해 이곳까지 무사히 실어다 주었다고 ‘물길을 따라온 돌’이라 덧붙인 말이다. 수마노탑은 마노석으로 만든 탑으로 칠층 모전석탑(벽돌모양의 마노석으로 쌓은 탑)이다. 상륜부는 청동제 장식이 있고 각 지붕들의 모서리에 풍경이 달려있고 지붕돌 모양이 직선이 아니라 처마처럼 올라가 있다. 탑 앞에는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연화무늬인 걸로 봐서 고려시대의 탑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본래는 자장이 당나라에서 구해온 석가의 신물을 세 줄기의 침이 서린 곳에 나누어 금탑, 은탑, 수마노탑을 모셨다고 하는데 후세 중생들의 탐욕을 우려한 자장율사가 불심이 없는 중생들은 금탑, 은탑을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숨겨 버렸다고 한다. 북쪽 남쪽에 금대봉, 은대봉이 있으니 어디엔가 금탑, 은탑이 있을 거라고 한다.

꼭 불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들 모두 ‘욕심 없는 마음, 아상(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승화되어 금탑, 은탑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하루의 정선 답사를 모두 마쳤다.

---10월---



부암동 순례기

좌경숙

2004년 10월 22일 9시 30분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무장을 단단히 하고 왔다.

얼마를 더 기다리는 동안 차아 보철을 한 전경 한명이 다가와서 “혹시 여기서 집회가 있으십니까?”하고 묻는다. 아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뽐혀왔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크게 한번 웃고 버스를 탔다. 인사모 17명이 가득 버스에 올라 단풍이 들기 시작





하는 세종로를 지나 경복궁을 지나 창의문길을 지나고 세검정을 지나 상명여대 앞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 홍지문으로 갔다.

그 곳에는 이미 부암동 동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김일림 선생님이 와 계셨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 부암동의 유형문화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법정동인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이 모두 행정동으로는 부암동에 속해있다.

1. 홍지문

홍지문은 서울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탕춘대성의 성문이다. 숙종 때 세워졌으며 북쪽에 있는 문이어서 한북문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숙종이 하사한 홍지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었으나 흔적이 없고 지금 있는 현판은 박대통령의 글씨라고 한다. 1921년 1월 문루가 무너지고 8월에는 오간수문까지 허물어졌는데 1977년에 원래 있었던 차도에서 조금 비껴 지금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평소에는 문을 잠궈 두고 있는데 오늘은 답사를 위해 문루를 개방해주어서 천천히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성문 아래로 오간수문이 있고 그곳으로 물이 흘러 홍제천이 이어지는데 지금은 수량도 작고 풀이 무성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에 아름다운 계곡으로 되살아나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성문을 나서서 세검정 초등학교로 향하였다.

2. 장의사지 당간지주

이곳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한 신라의 두 장수 장춘랑과 파랑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무열왕 6년에 창건된 장의사에 세워졌던 당간지주가 있었다. 나란히 서있는 이 두 개의 돌은 큰 절의 문 앞에 세워놓는 것대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나타내는 한편 중생을 거느리고 악마들을 물리치는 표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장의사지 당간지주는 서울 인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큰 것으로 보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장의사에서 고려 태조의 국사였던 원종대사 찬유(璨幽)를 위시하여 법인국사 탄문(坦文), 자정국존 미수(彌授) 등 고승이 배출되었으며, 고려의 국왕들도 자주 이 절을 찾았다. 조선 초에는 이 절의 중이 1,100명이었고 지붕을 청기와로 덮은 대사찰이었다. 그런데 연산군 때 홍제천의 맑은 물과 북한산의 절경 등 주위 환



경이 뛰어나 절을 헐어버리고 이곳에 연회장을 꾸며 사찰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의 계비 신의왕후 한씨를 위시하여 태종과 세종의 왕비, 예종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서 명복을 빌었으며, 세종 26년(1444)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집현전의 유능하고 젊은 학자들을 선발하여 이 절에서 조용히 학문을 닦게 하는 등 독서당(讀書堂)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사훈련을 위한 연용대(鍊戎臺)가 들어서고 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5군영 가운데 총융청이 자리잡으면서 군사훈련의 중심지가 되었다.

3.조지서 터

학교를 나와 세검정으로 가는길에 造紙署 터라는 표지석이 있었다. '옛부터 종이를 만들려면 물이 맑은 곳이어야하고 궁궐이 가까워서 이곳이 적격지가 아니었을까'하며 지나왔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써있다.

“이곳은 주위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종이원료인 닥나무 재배에 유리하였을 뿐 아니라 살아낸 닥나무 껍질을 헹구어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맑은 물이 흘러내려와 홍제천(모래내)을 이루고 주위에 반석이 많아서 종이를 제조하기에 맞았다.”

4.탕춘대 터

길을 건너서 탕춘대 터 라는 표지석 앞에 멈추어섰다.

우리가 보통 북한산을 오르면서 무심코 말하던 탕춘대 능선의 뜻과 역사를 이제 알게 되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1506년 창의문 밖 세검정에 있는 동쪽 약 100미터되는 산봉우리에 탕춘대를 짓고 말 그대로 봄을 방탕하게 즐겼는데 그 후 숙종에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을 쌓고 이 부근을 수도 서울의 북쪽 수어진지로 삼으면서 군인들이 유연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5.세검정

이제 세검정 앞에 왔다.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 이지역 일대를 한데 묶어 세검정이라는 지명으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세검정은 인왕산을 앞에 두고 북악산을 뒤로 한, 공기 맑고 풍경 좋은 곳, 북악산으로부터 흘러 내리는 계곡물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육각형의 작은 정자로서 조선 조 숙종 때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군사들의 휴식처로 세웠다고도 하며 영조 29년(1748)에 중수하였다. 세검정자는 '차일암'이라는 바위에 세



워졌는데, 왕조의 실록을 편찬한 뒤에 그 원고가 되는 사초를 이 바위 위에서 차 일(천막)을 치고 맑은 물에 흘러 보낸 데서 유래한다.

이 정자를 세검정이라 부르게 된 연유는 광해군 15년(1623)에 인조가 능양군으로 있을 때 이곳에서 광해군의 난폭한 정치에 반대한 이귀, 김유 등이 광해군의 폐위에 대해서 사전 모의를 한 후 거사에 성공을 하고 다시 돌아와 맑은 물에 피 묻은 칼을 씻었다 해서 칼을 씻은 정자, 洗劔亭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검이 칼을 씻어서 칼 집에 넣는다는 뜻인 만큼, 세검정은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다.

6. 석파랑

또다시 길을 건너서 유명한 음식점인 석파랑으로 왔다. 이곳은 따로 홈페이지도 갖추고 있는 지명도가 있는 한식집으로 대원군의 별장이라고 알려져있다. 우선 아치형의 입구를 들어서면 큰 감나무가 가을의 정취를 흠뻑 이끌어내고 작은 연못의 옆에는 정자가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곳에서 후식을 즐길 수 있다한다. 감나무 옆에 작은 표석에는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이 30여년간 이곳에 살며 가꾸어 온 문화 공간이라고 쓰여있다. 왼쪽에 있는 우아한 한옥은 순종비였던 윤비가 살던 옥인동집을 이축해온 것이라 한다. 바위 옆으로 놓인 운치있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석파정 경내에 있던 부속 사랑채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바로 그 대원군 별장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은 장식이 아기자기 하고 분홍빛으로 구워진 벽돌과 동그란 창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청나라 건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인 듯 하다. 이 집의 큰방은 대원군이 사용하고 건넌방은 손님 접대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대청에서는 대원군이 난을 쳤다고 한다. 추사의 새한도가 벽에 걸려있다.

그밖의 다른 곳도 고건축물에서 나온 자재를 구해다가 정성껏 다듬었기에 정갈하고 우아한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구한 말 상류사회의 안목을 느낄 수 있어서 시선을 끄는 곳이다. 특히 외국인을 접대하기에 알맞아 한번 다녀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서울을 기억하게 하며 따라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자랑한다.

7. 석파정

다시 부암동 쪽으로 더 걸음을 옮겨 본래 이 별채가 있던 석파정으로 올라갔다.



이곳에는 지금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공식적으로 관리인에게 부탁하여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 집은 본시 철종 고종때에 영의정을 지낸 김홍근의 별장이었던 것을 대원군이 하루저녁 빌려달라고 해놓고 임금을 모시고 가서 하루밤을 지내게하여 빼앗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임금이 묵어간 곳을 신하가 다시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 후로는 대원군이 자신의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돌이 많이 있어 자신의 호를 석파라고 지을 만큼 이집을 아꼈던 것 같다.

완만한 언덕을 올라가니 아주 잘생긴 아름다운 큰 소나무가 한그루 있고 그 뒤 큰 바위에는 三溪洞이란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아름답디 소나무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 60호이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북악이 한눈에 들고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멋진 대조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크게 네 개의 건물이 있는데 안양각, 낙안당, 망원정, 流水聲中觀楓樓이다. 이 긴 이름을 가진 누대는 말 그대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단풍을 관람하는 곳이란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큰소리로 짖어대기에 그 누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아래에서 보는 단풍도 상큼한 가을 햇살 아래 눈이 부시는데 더 말해 무엇하랴! 잠시 목을 축이고 다시 조그마한 오솔길을 걸어 망원정에 이르렀다. 아담한 자그마한 정자가 계곡 위에서 있었는데 지붕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정자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돌아 나왔는데 정말 친한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풍광이 빼어난 곳이었다. 평생을 풍량 속에 살아온 대원군이 유난히 편안할 안자를 집이름에 많이 쓴 것은 그의 꿈과 희망이 그의 마음안에 있었지만 결코 살아 생전에는 누리지 못했을 평안이 아닌가 생각하니 조금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8. 백석동천

백석동천으로 가는 길에 부암동사무소 앞에 동민을 위해 만들어둔 정자에서 어느 분이 보온병에 준비해온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건널목을 건너 환기 미술관 옆 길로 올라갔다. 삼삼오오 걸어 올라가는데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맑고 소음이 없고 사람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참 고즈넉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여기에서도 白石同天이라고 씌여진 큰 바위가 나타났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지 못하지만 시원하게 잘 쓴 것 같았다. 가운데의 '석'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모양의 석자와는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었다.



옛부터 동천이란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곳을 일컬었는데 조용한 숲 가운데로 조금 내려가니 정말 고요하고 밝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올해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산책길에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처럼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고 감탄했다는 신문 보도를 읽었다. 이곳은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인데 약 1500평 규모에 7자형 전통 건물터와 초석 15개와 장대석 기단 등이 있고 연못이 있는 아래쪽에는 정육각형의 초석 6개가 남아 있어 정자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백사실이라고 부르며 오성대감의 별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한다. 종로구는 이 일대에 대한 학술 용역을 지난 1월 상명대 최규성 교수팀에 맡겨 관련 사료 존재 여부와 역사적 가치, 정원 조성 주제 등을 연구토록 한 상태이며 최교수는 “조선 정원의 전형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의 ‘소쇄원’과 규모 및 공간이 비슷한 데다 배치 형태나 출토된기와 등이 조선 후기 별장지로 추정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예고지로 발표되었다.

이렇게 오늘의 문화유적 공부하기를 다 끝내고 준비해주신 도시락으로 그 백사실 옛터에 빙둘러 앉아서 점심식사를 했다. 바람이 부는 조금 추운듯한 날이었지만 이곳은 따뜻한 햇볕과 찬란하게 빛나는 단풍이 있어서 황홀한 가을날의 하루 순례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물론 내려오는 길에 환기미술관에 들러 그의 30주기 특별전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마다않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부암투어를 다녀와서

최광미

홍지문에서 서울 도성과 북한 산성을 잇는 탕춘대성을 바라보며 부암동 투어를 시작한다. 지금은 건강하게 복원된 오간수문으로 흐르는 물도 오늘은 그옛날 흘렀다 다시 환생(?)하여 흐르는 듯 하다.

세검정 초등학교 안의 통일신라시대 ‘장의사’라는 절터에 보물 제235호 당간지



주를 만난다. 3.68m의 최고 높이와 가장 오랜 세월을 지키며 당당히 서 있다. 이렇게 커다란 당간지주는 장의사 절터의 규모를 상상하게 해준다.

당간지주를 뒤로 하고 살짝 내려오면 세검정.

서인들은 인조반정을 성공하고 정자 위에서 음주가무도 즐겼겠지!



근사하게 누워있는 너럭바위들은 콘크리트로 바위들 모습이 초라하게 되었지만 옛날에 이곳이 조지서터 - 종이를 만들던 마을 이었다는데 바위 위에 한지를 말리던 모습을 상상해보라. 북악터널과 도로가 생기며 이곳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어찌하리.

앞으로 홍제천을 맑은 물이 흐르게 복원할 것이라는 동장님의 말씀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원군별장으로 향한다. 중국에서 가져온 돌로 중국풍으로 지어진 대원군 별장에, 한옥을 지으며 이축한 소전 손재형. 별장 안에 영인본 새한도를 보며 새한도를 있게 해준 소전에게 감사하며 석과정으로 올라간다. 근사한 한옥과 오래된 소나무 주위의 경관이 과연 대원군이 김홍근에게 착취한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근사한 자연을 내것으로 하며 치던 화폭들을 생각하니 역시 멋진 예술가 대원군.

개구리, 도롱뇽, 가재 등이 산다는 백사골별서로 발길을 옮긴다. 언제 누가 은둔 또는 자연을 즐기려고 지었던 것인지를 모른다는데 전형적인 한국적 자연미가 가득하다. 커다란 타원형 연못에 몇 개의 초석, 두 개의 건물터에도 누각 초석만이 전하는데 지금도 비가 내리면 북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계곡과 연못을 그대로 만들어줄 듯 싶다. 한그루 단풍이 가을바람과 나뭇잎 사이로 내리는 햇빛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다. 이곳을 투어하게 해주신 동장님과 김일립 선생님 등 여러분께 감사하며 돌아오는 길.

보너스.

역사천문학회 유승엽이라는 분의 개인 소유지인 곳을 돌아보게 되었다. 입구에 멋진 장승 한쌍을 바라보며 올라가니 자연염색한 옷감을 말리고 있었다. 이터가 최남선이 독립선언문을 집필하였던 곳 이란다. 이곳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천막을 쳐놓고 삼신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오늘도 우리들은 눈을가득 채운다.

---10월---



담양이여, 다시 오리라

사공정숙

내 고향은 경상도의 궁벽진 산골 마을이다. 산이 높지도 않고 내가 갇지도 않으며 농사지을 땅이 넓지도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자란 곳에 길들여져 어느 시점부터 냉정한 시각을 잃어 버리고 고향만이 최고의 선(善)이라 여긴다. 세상에 나와 수없이 많은 절경과 명소를 보면서도 마음 한 켠에 숨은 고향 숭배 의식은 어떤 의미로 내게 종교와 같다. 기세 높



은 설악의 산세 앞에서도 장엄한 캐나다 록키의 산맥을 우러르면서도 끝없이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상기하는 무너질 수 없는 신념이었다. 이제 나는 전라도 땅 담양에 와서 비로소 나의 아집과 편견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중이다.

생각해 보면 내가 고향을 사랑한 것은 저 희랍의 정신이 신전 속에 숨어 있듯이 작은 마을에 세워진 두 곳의 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재실 난간에 매달리며 숨바꼭질 하고 놀던 그 곳의 기억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간에 조각된 문양, 나무의 질감, 편액의 글씨들, 갓 쓴 어른들... 많은 정자와 누각을 보고 고택을 답사하면서 나는 늘 그 곳에 숨겨진 정신을 보려했다. 그들이 건물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의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삶의 현장에 만들어 놓은 흔적을 찾으려 했다.

면양정에서 시작된 담양의 누정은 송강정, 환벽당, 취가정, 식영정이 서로 이웃하며 조선 사대부 문화의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그 깊이를 더한 것이 명옥헌 원림과 소쇄원이다. 이 격조 높은 정자와 원림의 조성은 조선 사대부의 정신 세계, 즉 그들의 학문과 경륜과 미적 안목의 결집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남도의 너른 들에서 나온 막대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몇몇 대지주에게 국한된 토지의 집중과 겸병은 눈덩이를 굴리듯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정의 주인공들이 가진 부를 질시하거나 이들의 정신



을 은둔자적인 풍류로 단순화시키고 싶지 않다.

송순, 정철, 고경명, 김인후, 김윤제, 양산보, 기대승, 김덕령... 이들은 서로의 누정과 원림을 오가며 자연을 향한 음풍농월만을 읊조린 것은 아닐 것이다. 문학은 늘 현실에 대한 우회와 풍자이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안목 이전에 이들은 성리학자이며 정치가였다. 이들의 이상과 현실은 임금님이었다. 한 시대, 임금과 뜻이 맞으면 그들의 이상을 펼칠 수 있었다. 임금과의 불화는 곧 냉엄한 현실이 되었고 누정으로의 낙향을 의미한다. 물론 누정은 그런 의미에서 다분히 상징적이다. 누정으로 돌아와 그들은 더욱 더 이상의 칼을 갈아 임금에게 다가서려 했다. 이상의 칼을, 이념을 버리면 버릴수록 임금과의 괴리는 깊어가는 시대가 아니었던가.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임금은 성군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이 시대를 살아간 담양 누정과 원림의 주인들이 양민들에 비해 호사를 누린 행복한 부류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들의 정신은 호사스런 누정과 원림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같다. 두 원림의 주인인 명옥헌의 오명중과 소쇄원의 양산보는 정치에 뜻을 두지 않고 철저히 은둔 생활로 생을 마친 사람들이다. 뜻이 맞는 시인 묵객이나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자연과 벗삼아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 나는 이들에게 서릿발 같은 선비 정신을 읽는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가장 정치적인 삶의 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소쇄원의 기막히게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시를 짓고 거문고만 뜯었을 것인가. 시인, 묵객들이 모두 물러 간 겨울밤, 뜰에 달빛이라도 처연히 내리면 주인은 홀로 앉아 찻잔을 기울인다. 문득 비수처럼 꽃히는 스승(조광조)에 대한 그리움, 뜻을 펼치지 못한 시절의 불우함이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처럼 수런거리며 회한으로 다가오는... 한 사내의 마음을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쇄원의 미학을 찬양할수록 17세 약관의 나이에 꺾인 그의 이상이, 성군과 함께 펼쳐갈 그의 넓은 경륜이 소쇄원의 공간에 한정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소쇄원을 가꾸면 가꿀수록 도학정치, 그의 무릉도원의 이상이 안으로 안으로만 표현된 것, 그의 좌절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지나친 나의 감상일지도 모른다.

늦가을의 명옥헌은 배롱나무의 나신이 도열해 있는 조금은 쓸쓸한 풍경이다. 그래도 명옥헌은 쏟아지는 햇살로 눈부시다. 배롱나무에 꽃이 만개할 여름날이 되면 연못에 드리울 꽃그림자,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 옛날, 말을 매어두고 거사를 도모할 인재를 구하러 이곳을 찾은 중종 임금처럼 자동차를 몰고 수 시간을 달려 와도 아깝지 않으리라. 다 같은 은둔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소쇄원에서는 밝



은 아름다움보다 짙은 우수와 허무를 느끼는지 모를 일이다. 눈 덮인 겨울 밤, 달
빛이 부서져 내리는 소쇄원이 제 격일 것만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봄꽃이 흐드러질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담양이여, 다시 오리라, 넓고도 편안한 들판, 하늘, 나무들, 산과 내가 정겨운 곳
으로. 잃어버린 정신을 찾아 담양으로 꼭 다시 오리라.

--- 11월 ---





발행인 _ 강병기

편집인 _ 김은희

발행처 _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주소 _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아파트 908호

홈페이지 _ www.dosi.or.kr

후원 _ 서울특별시





도시연대

www.dosi.or.kr

- 이 책자는 서울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